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위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의 거룩 사랑의 온유함을 배워 세상에 나타내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오 (디모데전서 3장 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63호 2013년 12월 1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지역사회 위한 공동체로 재가동

CT, 테드 해가드 목사 몰락 후 재기한 "뉴라이프교회" 힐링 이야기 소개

테드 해가드 목사는 1985년 25명으로 뉴라이프교회를 개척해서 14,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콜로라도 주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켰다. 뉴라이프교회는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파워 있는 예배와 사역으로 유명하다. 특히 지역교회의 성장과 전도활동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다양한 대중매체 (뉴스&월드리포트, 카리스마매거진, ABC, NBC 등)를 통해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2004년 부시 대통령을 재선시키고 "전미복음주의연합" 회장으로, 한마디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남창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왔으며 마약을 복용해온 사실이 지난 2006년 11월 밝혀졌다. 이로 인해 복음주의자연할 회장직과 교회 당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정작 문제는 바로 "뉴라이프교회"였다.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14,000명이라는 교세는 8,000명으로, 헌금액 역시 동반 감소해 대형교회로 비대해진 몸집을 지탱하기에도 힘들게 됐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리더의 도덕적 몰락으로 인한 교인들의 상처였다.

그러나 8년 만에 "뉴라이프교회"는 예전의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커버스토리로 "뉴라이프교회"의 힐링 이야기를 보도해준다(New Life After the Fall of Ted Haggard: How the megachurch healed-by remembering what it means to be the local church).

테드 해가드 목사의 사임 이후, 남겨진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는 바로 "회개"였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어느새 "대형교회라는 자부심에 안주하는 공동체"로 유지되기를 위한 나태함을 회개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서 "기독교왕국"으로 자리 이동이 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테드 해가드 목사 1인 체제인 담임목사제에서 공동사역으로 목회진을 재구성하게 된다. 물론 담임목사로 브래디 보이드(B. Boyd) 그리고 공동목사로 데이브 퍼킨스(Dave Perkins), 글렌 파키암(G. Pakiam)들이 사역하면서, 예전의 카리스마틱 예전에서 철저하게 개인교 전통 예전으로 예배와 찬양 환경을 변경시켰다. 따라서 주일예배에서 "니케아 신조"를 읽고, 성경 읽기와 회중 고백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성찬식이 집행되는 등, 전통에 근거한 예배로 교회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 것이다. 현재 뉴라이프교회의 신앙고백은 바로 "니케아 신조"다. 그만큼 성경과 교회전통에 근거한 예전을 초석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로, 중보기도와 목적 있는 에큐메니컬주의로 나아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뉴라이프 목회진들은



대형교회가 리더십이 무너졌지만 공동리더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호응 받는 교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풀러신학교 분교에서 M.Div 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해석학을 비롯한 성경역사, 사회학 이론들을 접하게 되면서, 폭 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구비하게 됐다. 그 중에서 유진 피터슨(E. Peterson) 목사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특히 목회자들을 위한 목사라고 평가받는 피터슨 목사의

책(The Contemplative Pastor)은 무엇이 예수를 추종하는 본질인가를 묻게 하고, 타인을 돕는 한 개인이자 공동체로서의 지역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3면으로 계속)

도미노 하나의 영향력

리더십철학, 월드비전 미국회장 리처드 스텐스의 하나님의 영적 도미노 현상 소개

거대한 도미노 작품에서 각각의 도미노는 아주 작은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련의 사건들도 단 한 개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각 도미노는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뿐이지만 도미노 한 개 한 개가 모이면 굉장한 장면을 연출해낸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서 일하시는 방법도 똑같다.

라합에서 시작된 도미노 예수그리스도까지 1cm길이 29번째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쓰러뜨려

'라합'이라는 도미노 하나가 나에게까지

고상하다고 보기 힘든 기생 라합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심을 알아보고 그들을 도왔다. 도미노 한 개가 넘어진 것이다. 수십 년 후, 모압 땅에 살던 한 유대인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된 그녀를 따라 나선 모압 며느리 룯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다. 보아스와 룯을 통해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인 것이다. 도미노가 여러 개 더 넘어졌다. 그로부터 천년 후,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라합은 스스로를 매우 중요한 인물이나 성공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르게 보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구출과 구속 이야기에 그녀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 큰 이야기의 저자가 라합을 등장인물로 써내려가셨고,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도미노 하나는 3천4백여 년이 흐른 지금 나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도미노 작품의 일부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적 도미노, 곡선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영적 도미노는 다른 연쇄 반응들과 열심자로 교차하면서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도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어린 시절을 보낸 로버트 와일더(Robert Wilder)는 만성질환과 약한 체력, 대중연설을 두려워하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향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선교사가 아니라 학생선교지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Missions, SVM)의 창시자로 더 유명하다.

도미노 하나에 불과했던 그의 열정은 사방으로 전염되어 1886-1887년 사이에 167개 대학 교정에서 강연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라고 도전했다. 그의 강연을 들은 매코믹신학교 학생 새뮤얼 모펫(Samuel Moffett, 마포삼열)은 그 강연을 듣고 2년이 못되어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일곱 명중에 한 명인 김선주를 전도했고, 그가 설립한 교회에서 한경직 목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경직 목사의 권원으로 1950년에 한국에 주둔했던 중군기자 로버트 피어스(Robert Pierce)는 한국 전쟁 과부들과 고아들의 끔찍한 가난을 알리기 위해 미국에 '월드비전'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130여 년 전에 넘어진 도미노 한 조각이 130년간 다른 도미노 조각을 넘어뜨려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고, 100여 개 국가에서 4만5천명의 직원이 매년 수많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월드비전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도미노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실제로, 죽 늘어선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 정도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 1센티미터 길이 도미노로 시작한 연쇄반응이 스톤아홉 번째 도미노에 도달하면, 마지막으로 넘어지는 도미노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만한 높이가 된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도미노 현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결국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떠한 도미노를 쓰러뜨렸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2면

영적 개입으로 중독문제 해결



3면

크리스천 리더, 언제 어디서나 리더!



7면

아브라함 카이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CSK원장)



16면

특별기고: 재폐아 진단과 치료

이영섭 목사 정역 50주년 기념 및 원로 목사 추대 예배



본 교회는 30년 동안 시무하신 이영섭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아울러 정역 50주년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오셔서 복된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29일 (주일) 오후 4시
- 장소 : 볼티모어 교회 본당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TEL. 410-337-9448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볼티모어교회 당회원 및 교우 일동



시론

“Happy Holidays” 아닌 “Merry Christmas”로



양준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크리스마스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erry Christmas” 라는 카드 대신에 “Happy holidays” 라는 카드가 오고가기 시작하더니 몇년 전부터는 크리스마스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한 Nativity Scene(아기 예수, 요셉, 마리아, 목자들 또는 동방박사들)을 공공장소에 장식해 놓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독교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가 그 유래와 참 의미를 잃고 변질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담과 이브의 세상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크리스마스가 그 본래 의미를 점점 상실하여 하나의 공휴일(holiday)로 전락해 버리고, 소비문화와 유흥업계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인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것은 다케시마로 호칭하는 일은 바로 그 땅을 일본에 속한 영토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Christmas를 Holiday로 호칭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속화시키고 그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준비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이 계절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영향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메일이나 카드를 통해 계절의 인사를 나누는 일에서부터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합시다.

“Season’s Greetings” 또는 “Happy Holidays” 라고 쓴 카드를 사용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현실이기에 우리는 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의 오심을 이웃에게 전하는 “Merry Christmas!”의 카드와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참된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우리 교회의 온 가족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Merry Christmas!” 를 외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는 성탄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개입으로 중독문제 해결

CT, 러시아 알코올중독의 새 해결책 기독교 재활프로그램 소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멕시코의 데킬라와 더불어 침습을 받는 러시아의 술로 보드카가 있다. 그러나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마시고 있는 보드카 즉 알코올이 러시아에서는 “국가적 비극”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문제가 된다. 한 해에만 알코올 중독으로 무려 3만 명이 사망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과실치사로 기소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들에 의한 선량한 사람들의 황당한 사망 사건들이 증가하자 러시아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으로 1년에만 3만 명 정도가 죽어가는 국가적 비극을 해결하고자 목사와 사제, 여타 기독교 지도자들도 영혼을 구원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과연 국민들의 알코올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바로 의학적인 계몽이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보다는 영적 개입만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러시아 국민들을 살릴 수 있다고, 그 방법을 제시한다(Quenching Russia's Drinking Problem: 30,000 die each year of alcohol poisoning. New Christian programs bring faith into rehab process).

유럽은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민 1인당 연간 순수 에틸 알코올 소비량이 15.8리터로 유럽보다도 높다. 알코올 소비량이 러시아보다 높은 유럽 국가는 몰도바(18.2)와 체코(16.5), 헝가리(16.3) 정도일 뿐이다. 러시아의 주 알코올 소비 계층은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 남성들로서 연간 평균 155리터의

도 높인다. 임산부의 알코올 남용으로 태아 알코올중후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알코올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직장 내 음주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15-30%까지 떨어뜨린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이를 연구하는 보리스 세갈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손실을 2012년 러시아 GNP 3조 2천



부분 회복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의해 운영된다.

이런 재활센터들의 공통된 주장은 의학적 개입보다는 영적 개입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들의 접근 방법은 성공적인 듯 보인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국영 혹은 영리 위주의 민영 프로그램보다는 높은 회복률을 보고하고 있다. 회복 전문가들은 이른바 ‘폴드 터

이 즉시 원래 환경으로 돌아가는 대신, 일정기간 사회복귀 훈련시설이나 (정교회의 경우에는) 수도원, 수녀원, 외딴 교구 등에서 지내기를 권장한다. 또한 직업을 구하거나 재활센터 동창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금주를 지속하도록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독려한다.

한편 재활과 교회 성장은 동시에

교회기반 재활프로그램 성공으로 실천자들 검증 교회 일터에서 영향력 행사, 시민사회 변화 기대

보드카를 마신다.

러시아의 음주 문제는 국민의 삶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다. 사모곤(samogon)이라 부르는 러시아 밀주나 부동액, 향수, 세정액 같은 “알코올 대용품”도 알코올 관련 사망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남성 세 명 중 한 명이 주기적으로 폭음을 하고, 이는 살인, 자살, 의사, 치명적 산재, 화재 등의 원인이 된다고 추정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75%와 자살 사건의 42%가 음주상태에서 벌어진다. 한 도시 지역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83%, 의사자의 63%, 추락 사망자의 62%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러시아의 알코올 남용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사망만이 아니다. 절도, 폭행, 강간, 가정 폭력, 이혼, 아동 방임, 아동 유기 등의 발생률

의 1/3 정도도 추정한다.

러시아정교회와 개신교회들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약물 및 알코올중독 재활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1994년에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한 오순절교회에서 개신교회 최초의 거주형 재활센터를 개원했다. 1년 후에는 오순절교파 계열의 뉴라이프 재활센터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 거주형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재활센터로 보통 170-400명 가량의 중독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터뷰 결과, 교회에서 지원하는 대다수 재활센터들은 20-25명 정도의 알코올중독자를 수용하는 소규모 센터였다. 총 900곳을 상회하는 (러시아정교회 소속 100여 곳과 개신교회 소속 800여 곳) 이런 재활센터들은 운영 방식이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낙후된 시설에서 최소의 예산으로, 대

부분 회복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의해 운영된다. 이런 재활센터들의 공통된 주장은 의학적 개입보다는 영적 개입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들의 접근 방법은 성공적인 듯 보인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국영 혹은 영리 위주의 민영 프로그램보다는 높은 회복률을 보고하고 있다. 회복 전문가들은 이른바 ‘폴드 터키’(cold turkey), 즉, 아무런 대체용 품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만 의존을 끊는 중독치료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의 교회 재활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그런 즉시 금단요법에 의존하고 있다. 대개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값비싼 약물을 제공하며 알코올에 대한 욕구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약물남용 전문가인 엘리스 기블렛은 “기도의 치유 능력”이 최악의 알코올 금단 증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교회기반 재활치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코올중독을 치유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 성경공부와 기도, 예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중독치료의 실천적, 영적 수단이 된다.

그러나 중독자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재발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재활센터들은 수료생들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교회가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재활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우는 식이다. 모스크바의 오순절교회 목사이며 재활센터 원장인 안드레이 블린코프에 따르면, 재활 프로그램 수료자들 중 교회 활동에 열심인 사람들이 알코올에 다시 접근할 확률이 가장 낮다. 그 결과 중독자뿐 아니라 교회에도 혜택이 미치고 있다. 기블렛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마약 및 알코올 재활 사업은 가장 강력한 교회 성장 요인”이라고 말한다.

교회 기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국의 교회기반 재활센터의 원장 및 직원들 역시 회복 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이다.

기블렛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20곳의 복음주의 재활센터 원장 중 14명이 회복 프로그램 수료자들이었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offer.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name, founding year (1986), website (www.midwest.edu), and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study options (On Campus, On-Line, Blended).

크리스천 리더, 언제 어디서나 리더다!

리더십저널, 오브리 멜퍼스 목사가 말하는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제안 소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여전히 리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믿는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목회학교수이자 목회상담과 지도자훈련을 전담하는 멜퍼스 그룹의 총재인 오브리 멜퍼스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크리스천 리더는 교회 안팎에서 리더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떠올린다. 또는 어떤 기관(주일학교, 청년부 등)의 대표(부장, 회장 등)를 맡은

고전11:1)고 했는데,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단지 교회 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까지

격을 가진 자가 돼야 한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의 동기가 돼야 한다. 그가 일반회사나 동호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리더 이전에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삶에서 본 보이는 성숙한 인격 갖도록

사람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앞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주로 교회 내에서의 리더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 리더는 결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리더일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물론 교회 내에서도 리더이고, 교회 외부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리더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의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존재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돼야 할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포함된다(행18:3).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 리더는 그가 교회의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았건, 사회의 다른 모임의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건 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헌신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높임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온 땅과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인

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뢰하는 자가 돼야 하며, 회사의 최고 책임자라 하더라도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영리단체이건 비영리단체이건, 1차 집단에서건 2차 집단에서건, 그리스도인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각 사람의 영적 필요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다.

결국 그리스도인 리더는 자기가 리더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더이다.

영적 개입으로 중독문제 해결

(2면에서 계속)

이런 현상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더욱 현저하다. '복음주의 기독교-침례교도 선한 사마리아인'(Evangelical Christian-Baptist Good Samaritan) 재활센터의 경우 40명의 원장 전부가 센터 수료생이다.

수료생들은 롤 모델로 활약한다. 밀(Mill)재활센터를 운영 중인 핵심 신부와 직원들은 원생들에게 하나님과 성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한다. 하지만 원생들은 재활센터를 수료한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최고의 롤 모델로 간주한다.

성공의 두 번째 열쇠는 재활센터의 거주 형태다. 주간 프로그램에서는 알코올중독자들이 주변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지만, 거주형 재활센터라는 "분리된 공간"에서는 중독자들에게 "소위 정상적이라 불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대학교의 인류학자 자레트 지곤의 설명이다.

셋째, 교회들은 도시의 유혹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 재활센터를 설립한다. "도시의 현대적인 삶에서 멀리 떨어진 소규모 '가족형' 시설에서 지낼 때, 중독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변화된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기블렛은 말한다.

팔로로 교회 기반 재활센터는 검소하게 운영된다. '틴 챌린지 앤드 베텔'(Teen Challenge and Betel) 같은 재활 프로그램은 사업 시작 비용 등을 지원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교회 기반 재활센터들은 중독자나 정부, 해외의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다. 물론 변화의 조짐도 있다. 지난 11월, 러시아연방 마약 통제청(Russia Federal Drug Control Service)에서는 2013년에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재활센터에 10억 루블(3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다수 (자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기반 재활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뉴라이프 재활센터는 중독자들을 자동차 정비, 목공, 제재, 전기, 배관, 건설 등의 분야에 취업시킨 후 그들의 임금에서 수입을 얻는다.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에 자리 잡은 밀 재활센터는 중독자들이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들을 사육하며, 직접 가구를 제작 및 판매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의 평가는 쉽지 않다. 완치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완전한 중독 치료의 정의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소련시절에는 중독자가 두 달 동안 금주하면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시카고대학교의 인류학자 유진 라이켈은 지적한다. 그러나 교회기반 프로그램의 완치적효과는 평생 단주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조사해본 결과, 국영 및 영리 위주의 민영 재활센터의 치료 성공률은 평균 10% 미만이었다.

반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회기반 재활 프로그램 수료자들은 평균 61%가 비교적 장기간 혹은 평생 금주를 유지했다. 30년 가까이 국영 재활센터에서 근무했던 우크라이나의 한 의사는 그동안의 노력이 "절망적이고 무의미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현재 키에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기독교 기반 재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도 점점 기독교 기반 재활센터의 성공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양한 약물 및 알코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평가한 후에, 교회기반의 '진리를 알라'(Know the Truth) 커리큘럼(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 재활센터협회(All-Ukrainian Christian Rehabilitation Centers Association) 소속 80개 센터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을 네 가지 공인 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정했다.

러시아에서는 한 외부 전문가가 교회기반 뉴라이프 재활센터의 성공을 "러시아 최고의 중독 치료센터의 수준에 필적한다"고 판단했

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5년 뉴라이프 재활센터 원장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결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회기반 알코올 재활 운동은 1991년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전개한 가장 야심찬 사회봉사 활동이다.

한때 거의 폐기되었던 "밀로세르디(miloserdie, 자선)"이라는 러시아 단어가 다시 통용되기 시작했다. 국가나 정교회의 세부적인 관리 없이도 시민사회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오순절 교회는 서구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알코올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회기반 재활프로그램은 알코올중독을 용인하는 러시아 주류 문화에 대응하는 금융적인 허부분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기반 재활프로그램의 성공이 알코올중독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아직 미지수다. "음주로 인한 수많은 개인적 비극도 알코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과도한 음주가 일상이 되었거든요." 알코올중독 연구의 권위자인 알렉산더 넵트소프는 말한다.

재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알코올중독)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보다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파괴적인 열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본성의 왜곡을 경험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망해 죄의 노예가 됩니다." 2009년 키릴 대주교는 공동체 대표들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여 알코올중독에 대처할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금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고, 교회와 일터로 돌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들은 철저한 금주생활과 직업윤리, 사회활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에서부터 광범위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지역사회 위한 공동체로 재가동

(1면에서 계속)

결국 뉴라이프교회 현재의 목적은 바로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이 드 담임목사는 오스틴, 텍사스, 덴버 그리고 포트 콜린스 일대에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역점을 두 공동사역으로 개척교회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여기에 2011년에는 비영리단체인 "드림센터"(Dream Centers of Colorado Springs, DCCS)를 설립해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필요를 충족시켜 주게 된다. 그 첫 사업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과 여성들을 위한 '헬스 클리닉'을 열어, 매일 15-30명의 환자들에게 최상

의 의료혜택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헬스 클리닉의 성공은 곧바로 2개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착수하게 해, 현재 고아원을 떠난 소년들을 위한 주거시설(Joel's Home)과 싱글맘으로 노숙하는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복합주거공간(Mary's Home)까지 운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뉴라이프의 드림센터 사역이 더욱더 신뢰성을 갖는 것은 바

로 사려 깊은 생각과 여기에 적절한 돌봄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뉴라이프는 자신들보다 전문성을 갖는 비영리단체나 전문단체와의 연합에도 거리낌이 없다.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교회공동체보다도 더 전문적이라면, 다른 단체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신선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제휴나 니컬한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다. 결론으로, 담임인 보이 드 목사는 뉴라이프교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커다란 천막교회(Big-Tent Mega church)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기독교 제자도들이 예전과 검증된 신학적 전통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됐으나 겸손의 미덕까지 구비한 목회진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서도 개신교 전통이 가미된 카리스

마틱 기도와 예배까지도 유지하려는 욕심(?)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뉴라이프교회의 예배는 어떠한 목회자나 사람에게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살아 있는 그래서 영감과 감동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뉴라이프는 진정으로 새로운 생명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점점 더 넓어가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4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1월 24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4년 1월 2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4년 1월 27일(월) - 29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라!

어느 무신론자가 사는 옆집에 한 가난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고, 무신론자는 수도 없이 그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모르세요?"라고 괴롭혔지만 그 신실한 크리스천 여성은 계

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의 집에 식료품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때도 그 여성은 평소처럼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에게 감사하는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무신론자는 이번엔 정말로

그 여성의 기도가 의미 없다는 것을 가르쳐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식료품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일상에 필요한 식료품들을 구입해서 그 여성의 집 문 앞에 쌓아놓고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벨소리를 듣고 나온 여성은 문 앞에 놓인 식료품을 발견하고 필쩍 필쩍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숨어있던 무신론자가 뛰어나와 그녀에게 "쫄쫄, 딱하기도 하네요! 이 식료품은 하나님께서 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갖다 놓은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좋아서 더 필쩍 필쩍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내 식료품값까지 지불하게 하시리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죠!" 무신론자는 그 순간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무신론머리를 역이용해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구나!" 자신의 어리석은 꾀까지도 역이용해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그 탁월한 지혜까지 가지고 있는 분임을 깨닫고 드디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생활을 하는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까워서 안보이고 너무 멀어서도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읽어보는 정도밖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면 그 분은 지식의 대상 학문의 대상 일 뿐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와 가슴 손과 발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되어야 비로소 이해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한 분임을 확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여 힘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푸 / 른 / 초 / 장

김풍운 목사
(벽스카운티장로교회)



와서 살던 아파트와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던 교회 옆을 지나가며 미국에서의 27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 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셋째는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든 중에 살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못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볼 때마다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지를 재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재활원에서 사역하는

제는 막노동용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 부부는 "아이들 때문에 불평하는 부부는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라고 말했다고 13년간 여러 번 싸우고 갈라진 교회에 다닌 분은 화목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한다는 영어 단어 "Thank"는 생각한다는 단어 "Think"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생각하는 감사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리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의 계절을 보내야 할까요?

생각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구원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를 상징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서 기도하신 예수님, 빌라도의 뜰에 선 예수님, 갈보리 산 올라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둘째는 지난날입니다. 신16:12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찌니라"는 말씀이 있

생각하는 감사절 (사51:1-2)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입니다. 히12:3에 보면 "죄인들의 이갈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하나님께 받은 각종 선물과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우리들,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실의 삶이 힘들지만 거역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합니다. 어찌 보면 강도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감사하라고 가르쳐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죄짓고 사는 우리들을 벌 받지 않게 하려고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그 강도처럼 예수님 발아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겹세마네 동산에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 년에 세 차례 지키는 절기 때마다 이집트에서 종 되었던 때를 돌아보며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규례에 대하여 신16:16-17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찌니라"고 구체적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LA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1986년에 미국에 처음

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 여 집사님은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너무 고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내외는 늘 그 집사님과 어린 남매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 후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였고 함께 식당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두 자녀 모두 훌륭하게 커 가정을 이루었고 그 식당은 가 볼 때마다 주 중에도 손님이 줄을 지어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잘됩니다. 그 집사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신

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식물 인간 환자의 가족은 환자가 자기들을 알아보지만이라도 했으면, 머리를 움직이는 환자는 상체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휠체어를 탄 환자는 지팡이를 잡고 걷기만이라도 했으면, 지팡이를 잡고 걷는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자기 다리로 걸어보았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부흥회에 가서 만난 성도들의 말입니다.

페암이 간암으로 전이된 젊은 부부는 "이전엔 돈 잘버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부러웠는데 이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Feb 10-14(2월 10일-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일-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졸업식 안내 ●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Orthopaedic Capital Center

● Online 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Jan 6-Feb 28 (1월 6일-2월 28일)

-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Bangkok, Thailand
• March 31-April 4 (3월 31일 -4월 4일)
IM 8300 Islam(이슬람)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Korea
• April 7-11(4월 7일 - 11일)
DI8220 Clu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iberius Rata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동성결혼 합법화 10년째 매사추세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동성에 운동가들과 지지자들은 동성결혼은 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들이 점점 더 많은 미국시민들의 동성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동성결혼" 뿐 아니라 "결혼" 자체는 개인적인 것이 동시에 극히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사실'이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게이의 날을 만들고 그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며, 학교마다 동성애 행위를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 해보는 행사도 가지며 그들의 삶 자체를 동경하는 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 학교 프로그램들과 수업내용들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교과서 또한 친동성애 내용들로 바뀌며 영어수업시간에 따로 읽는 책 내용들까지도 동성결혼이 사회에서 극히 정상적인 일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미국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이 동성교육이 있기 전보다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학교 도서실 또한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도서실마다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해 오로지 긍정적이고 왜곡된 책들로만 가득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런 책들 중 많은 책들이 동성애 성행위를 그림이나 글 내용으로 보여주는데, 거의 포르노 수준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해보고 싶게끔 하는 자

게 된 학부모들이 알고 항의를 시작했으나, 오히려 항의한 어떤 아버지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합니다. 2006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왕과 왕"이라는 남자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사랑하여 결혼하게 된다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읽게한 것을 알게 된 몇몇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Robb and Robin Wirthlin 가 학교에 항의를 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뉴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공립학교, 동성애/동성결혼에 대해 긍정적 교육 '학부모 반대할 권리 없다' 새로운 법안 통과

다음세대로 이어주는 "새 생명"을 탄생케 하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맺는 모든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첫 번째 기관인 것입니다. 결혼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결혼한 부부와 가정들에게는 더 특별한 혜택을 부부들에게만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제정되었는 것이 고요.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주(State)입니다. 200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고 2004년부터 그 법이 시행되면서, 매사추세츠에서는 사회, 문화, 교육, 비즈니스, 병원, 가정, 전반에 폭력의 증가와 그로인한 부정부 자금부족 문제 등등, 삶의 모든 분야 속에서 여러 변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즉 시민의 권리를 빼앗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소수 사람들처럼 묘사되어있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환자들 또한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급속히 모든 공립학교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남녀 학생들끼리 서로 옷을 갈아입고 다른 성정체성을 갖는 사람처럼 연기해보는 것들이 학교 수업에서 격려되며 학교 프로그램 자체에 친동성애/친성전환자 프로그램들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각 학교에 동성애 단체들에게만 특별히 주는 후원금이 있으므로 각 학교마다 동성애, 성전환자 프로그램을 더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공립학교 3학년 반에는 여성의 옷을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성전환자나 동성애 등 달라 보이는 가정들도 극히 정상적인 가정이고 부부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가 학교에 불평하자, 학교는 학교로서 가르칠 것을 가르쳤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Parkers and Wirthlins 등 학부모들이 법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소송하였지만 모두 묵살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2007년에는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동성애/동성결혼에 대해서 학부모가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즉, 연방부 법정에서는 단지 매사추세츠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이유로 각 개인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까지 없다고 법적인 결론을 내버린 격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특별히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고 동성결혼한 사람들 사이의 가정폭력이 늘어가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려드립니다.

공립학교의 변화

동성결혼이 매사추세츠에서 2004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다른 공립학교 시스템이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곧 미국의 다음세대들입니다.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화 되자마자 수개월 안에 학교들마다

이런 공립학교의 강력한 친동성애 교육으로 인해 매사추세츠에 사는 수많은 학생들은 스스로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Massachusetts Youth Risk Behavior 설문조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경험을 했다는 학생들

공립학교의 동성애 교육을 반대할 학부모에 대한 압박

2004년 렉싱턴에 있는 유치원에서 그림책에 "누가 가족인가"라는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족에 대해 혼돈스럽게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된 학부모가 학교에 조용히 자기 자녀는 그런 내용을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가 경찰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도 초등학교의 교과서들이 동성결혼과 동성애 행위를 정상적이고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음을 알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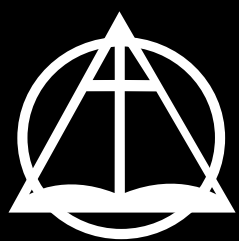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지금은 성탄의 계절인데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의 유래가 역사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성탄트리가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혹은 필요없다고 의견이 나누어는데 목사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김 권사

A: 성탄절이 되면 제가 섬기는 교회도 예배당과 친교실에 트리장식을 합니다. 그리하여 성탄절의 분위기를 연출코자합니다. 그러나 트리장식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것이나 썰매같은 이교적인 것은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성탄절트리장식은 각 교회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의 신학적인 평가는 일단 접고 오직 성탄의 분위기를 연출에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 국민일보 미션투데이에 칼럼을 실고 있었던 임한창씨는 "아름다운 내일을 여는 213가지 이야기"란 책에서 성탄트리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탄트리장식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와 역사적으로 관계

성탄트리장식 하든 안하든 성경적 문제없어

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하루는 전나무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날따라 숲은 눈에 덮여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고 달빛을 받은 전나무들은 오히려 영롱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에 짓눌려 외롭게 서있는 전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자태를 자랑하던 멋진 전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중요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전나무들은 영롱한 달빛을 받을 때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모두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걷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 이 깨우침을 받고 루터는 전나무 숲에 앞다려 경건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루터는 전나무 가지에 소복이 쌓인 눈송이를 연상하면서 숨을 멎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을 그리며 촛불과 형형색색의 종이별을 매달았습니다.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입니다. 성탄목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말틴 루터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그리스도에게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성경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구절의 고백 속에는 바울이 성탄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트리나 장식을 하든 안하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트리장식을 해도 성경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3.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6(Fri) - 19(Mon), 2014
- 2) Place: Toronto, Canad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Luke 16:19-26
- (2) NT Exegesis Text - Leviticus 21:1-9
- (3) Thesis Topic - Plagiarism and integrity
- (4) Sermon Text - ① NT: 1 Corinthians 15:1-1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all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4.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4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6-20) through Rev.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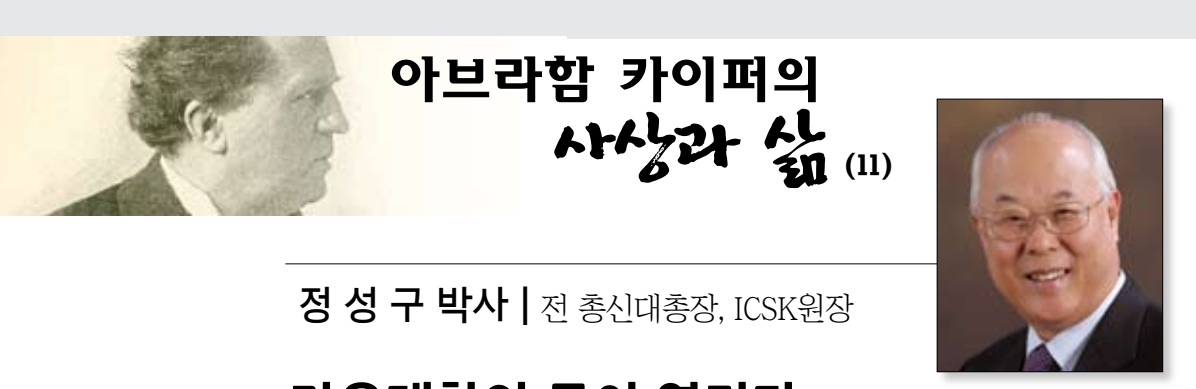
7. Submission Address

Rev. Se Young Han / Address: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E-mail : syhan91@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amuel Heo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e Young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3) Inquires in English :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총회장 : 엄영민 목사 서기 : 고택원 목사 고시부 부장 : 허상희 목사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II)

정 성 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자유대학의 문이 열린다

카이퍼의 자유대학을 세우기 위한 오랜 투쟁은 치열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철갑처럼 무장된 국가를 상대로 해서, 19세기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암초는 여기저기에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였다. 국립대학이야 국가의 재정으로 아낌없이 쓰고 일하도록 되었으나 사립대학으로서 자유대학은 그러하지 못했다. 카이퍼의 꿈을 아는 몇몇 부유한 사람들의 기부도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었다. 그래서 카이퍼는 뜻을 같이 하는 개혁주의 성도들의 작은 주머니에서 도움을 구했다. 카이퍼는 학교 후원을 위한 개미군단을 만든 셈이다. 후일 카이퍼의 후원자들은 동전 저금통장을 만들어 '자유대학은 여러분의 것입니다'(V.U is UW)라는 구호를 만들어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카이퍼는 설교와 강연과 메일 같이 쏟아내는 명칼럼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힘을 한데 모았다. 과연 카이퍼는 시대를 뛰어넘는 일꾼이었다.

카이퍼가 자유대학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하고 개교일이 가까워오자 찬반양론이 극에 달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왜 세울 수 없

말인가라고 하면서 후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나선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호되게 비판하고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었다. 즉 카이퍼가 자유대학을 세우고 신학부를 만든다면 이는 제도적 교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또 카이퍼가 구상하는 칼빈주의적 대학 설립계획은 통일된 화란의 국가정신에 도전하는 반역 행위라고 몰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또 더 독선적인 비판자들은 '카이퍼가 자신의 학교를 설립해서 모든 학문과 과학에서 자신을 격리시켜 버린다'고 혹평했다. 더 심한 사람들은 카이퍼가 세운 자유대학은 몇 년 못가서 문을 닫을 것이며 하루살이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편 어떤 이는 격정하기를 만에 하나 카이퍼가 세운 자유대학이 점점 커져서 카이퍼의 제자와 졸업생들이 각계각층에 포진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염려하기도 했다. (그 후 그들의 격

정은 현실화 되었고, 지난 130여 년 동안 수많은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각 영역의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하나님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드디어 1880년 10월20일 자유대학은 개교되었다. 이는 카이퍼의 65권을 집필했다. 물론 카이퍼 박사는 223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들이 그토록 위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를 추종하는 수많은 개혁교회 평범한 성도들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880년 10월20일, 자유대학교 개교의 핵심은 카이퍼 총장의 취임 연설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영역주권사상(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을 선포했다. 카이퍼의 독특한 연설법인 청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웅변술과 미학을 동원한 연설은 칼빈주의 사상의 핵심을 선포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정치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교육계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운집했다. 그 가운데는 카이퍼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반대자도 많

았다. 하지만 카이퍼 박사의 확신에 찬 그의 메시지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권이 움직이고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므로 다 른 영역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땅이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땅은 한 치도 없다고 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실히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메시지가 되었다.

카이퍼의 메시지에 물을 끼얹는 듯이 고요했고, 때로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지기도 했다. 그동안 기독교 고등교육법을 위해서 사활을 걸었던 카이퍼는 그 자리에서 모든

반대파들의 이론을 잠재웠다. 카이퍼는 그 후 공동설립자들과 협력하면서 서로 신뢰했다. 화란에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수립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학문적 토론은 물론이고 정책적 토론도 같이 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카이퍼는 당면한 문제인 학교의 확장을 위한 기금조성, 학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전을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카이퍼야말로 오늘로 말하면 CEO형 총장이었다. 실제로 카이퍼는 초대총장 말고도 네 번 더 총장의 일을 했다. 1880년에 총장 취임사에 '영역주권사상'으로 강연했다. 그러나 다시 1882년 총장재임 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현대의 성서비평을 비판함'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화란의 전통은 총장이 취임할 때

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1892년 카이퍼는 네 번째로 총장의 일을 시작했다. 당시의 취임 강연은 '경계의 깃발'(De verflauwing der Grenten)이었다. 인본주의세계관과 칼빈주의 세계관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여기서 카이퍼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있다.

1899년 카이퍼 박사는 다시 총장에 취임하면서 '진화론'(Evolutie)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카이퍼는 당시 유럽을 강타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진화론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하나님 중심의 칼빈주의 세계관을 역설했다. 실제로 카이퍼가 다섯 번의 총장 사임과 다섯 번의 취임연설 내용은 그가 자유대학교를 설립한 목적과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셈이다.

카이퍼는 자유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칼빈주의 운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 대학은 성경적 세계관의 진원지이며 또한 개혁주의 사상 곧 칼빈주의 사상을 체계화 나가는 동시에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대항 하였다. 앞서 말한 대로 카이퍼는 자유대학교를 통해 정부의 간섭과 교권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중심의 원리로 경건과 학문을 이루어가는 대학으로 가고자 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지만 그는 또한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대학의 주인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적 명령(Cultural mandate)(창1:27-28)을 수행하도록 소명을 주신 것이다. 결국 카이퍼가 세운 자유대학은 그의 칼빈주의의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고 교회의 개혁, 교육의 개혁, 정치의 개혁, 사회개혁의 총사령부가 된 셈이다.

이메일: skc0727@yahoo.com (다음호에 계속)

자유대학교 설립으로 칼빈주의 운동 체계화 5회 총장취임연설로 설립 목적과 사상 제시

가정사역 칼럼

싱글 패밀리 송년모임 스케치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12월이 되면 우리들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해보게 된다. 그러나 순간순간 무겁고 숨가쁘게 살아왔던 싱글패밀리들에게 송년모임이 그리 흥겹고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싱글맘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하고, 여인이 혼자 버는 돈만으로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 3가지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육아와 가사의 일을 돌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하루하루를 넘겨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싱글맘들은 사역자인 우리에게 "우리를 잠시라도 마음껏 편히 쉬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를 웃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곤 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싱글 맘, 대디(daddy)들을 위해 송년모임을 계획했다.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혹시 주변에 계시는 싱글패밀리들을 위해 교회나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송년모임은 한해를 돌아보며 1부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식사 및 소개 그리고 3부에는 파티형식으로 진행되는 모임인데, 해를 거듭하며 점차로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또 연말이 되면 송년모임을 기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이 고무적인 일은 송년모임에서 만난 분들끼리 자체적으로 서포트그룹(Support Group)을 만들어 약속 세미나도 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며 때론 연휴에 여러 싱글패밀리 가족끼리 모처럼 만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한다. 현재는 저희가 진행하는 송년벙커에 LA지역 15여 교회 싱글패밀리들이 자녀 포함하여 100여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첫해의 송년모임을 잠시 스케치해보았다.

송년벙커 스케치: 싱글 맘들의 신데렐라의 꿈이 이뤄지다!!

송년모임을 좀 특별하게 진행했다. 일상과 다르게 파티복을 기증받아서 참석하시는 여자분들은 파티복을 입도록 한다. 물론 남

자들도 정장차림이다. 파티복은 행사장 옆에 준비된 피팅룸(fitting Room)에서 입어보도록 하며 즉석에서 몸에 맞도록 간단한 수선도 해주었다. 파티복과 함께 자원 봉사하는 미용사들이 대기되어있다. 파티복과 머리를 금방 어울리게 코디해준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인들은 마음으로부터 가장 멋진 파티는 열리게 된다. 지난 간 어떤 시절에 인형옷을 입혀주며 너무나 기뻐하던 그 꿈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드레스를 입어보는 곳에서는 숨넘어가게 웃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좋기도 하고 축스럽기도 하고 신나기도 해서 웃는 웃음일 것이다.

각각한 이민사회의 현실에서 좀처럼 시도하기 어려운 지도 밖으로 나가보는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놀람도록 변신하여서 모든 여

인들이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파티복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생각하였는데 60이 넘으신 분들도 모두 파티복을 입으시고 즐거워하신다(너무 노출이 심하다 싶은 분은 어깨에 스카프나 보자기 등을 걸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곳저곳에서 후원해준 물품으로 예쁘게 선물가방을 만들어 챙겨드릴 수 있다. 여인이 과거를 잔뜩 준비해주시는 분, 현금으로 지원해 주신 분, 어린이들을 기쁘게 섬겨주시는 분, 여러 가지 물품을 기증해주시는 분, 식사 및 선물준비로 섬겨주시는 분 등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손길이 모아져서 풍성한 사랑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참 보람된 시간들로 이어진다.

이메일: milykum@gmail.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부흥성회

기간 : 2013년 11월 25일(월) ~ 30일(토)
12월 2일(월) ~ 12일(목)

시간 :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문의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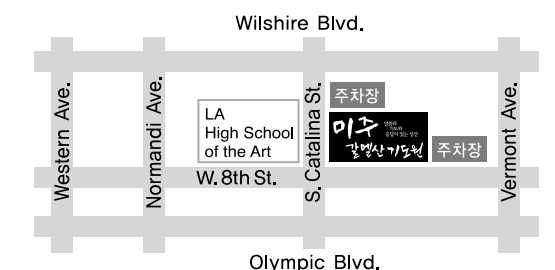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www.galmelsan.or.kr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미주 갈멜산기도원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63. 공룡 뼈의 연대측정 결과

약 한 달 전에 “창조를 지지하는 탄소 연대측정”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 칼럼에서는 1)석탄, 석유, 화석,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 탄소를 포함하는 모든 물체들이 방사성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실은 2)그 증거물들이 모두 수백만 혹은 수천만 혹은 수십억 년 전이 아니라 수천년 된 것들이며 3)탄소 연대측정 결과들은 성경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반대인 진화론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룡 뼈들을 방사성 연대측정한 보고를 감추고 있는 진화론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고발하고자 한다.

지난 2012년 8월 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지구과학회(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와 미국지구물리학회(American Geophysical Union)의 연합 국제학회에서 9마리의 공룡 뼈들을 방사성 탄소로 연대측정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 프랑스, 폴란드의 10명의 과학자들은 텍사스, 알라스카, 콜로라도, 몬타나, 그리고 중국 등에서 발견된 아크로칸토소러스(Acrocanthosaurus), 알로소러스(Allosaurus), 헤드로사우루스(Hadrosaur), 트라이세라톱스(Triceratops), 아파토소러스(Apatosaur) 등 9마리의 공룡 뼈들의 방사성 탄소 양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분석된 공룡 샘플들은 뼈 자체, 치아 성분과 같은 인회석(bioapatite), 콜라겐(collagen), 탄화된 뼈 조각, 그리고 산성 유기질인 후민산(humic acid) 등의 다양한 형태들이었다. 결과는 그 다양한 공룡들이 1억5000만년-1억8000만 년 전의 것들이 아니라 22,000-39,000년 전에 죽었던 것으로 계산되었다. 수억 년의 진화론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발표한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지구과학회와 미국지구물리학회 연합학회는 이 주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지만 믿음만한 데이터들을 발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현명한 정책입니다.”

또 다른 과학자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과학자들에게도 세계 도처에 있는 박물관이나 대학에 소장하고 있는 공룡 화석들의 방사성 연대측정을 해보시기를 권

지금 이 학회 웹에서 이 발표내용은 그림에서 보듯이 삭제되어 볼 수 없게 하였다(<http://www.asiaoceania.org/aogs2012/mars2/pubViewAbs.asp?sMode=session&sid=2&submit=Browse+Abstracts>에서 5번이 없어졌다). 처음에 이 학회에서는 이 내용을 발표하도록 허용했으나 논란이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삭제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발표내용이 youtube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Carbon-14 dated dinosaur bones-under 40,000 years old”란 제목을 유튜브에서 찾아면 된다).

학회의 이런 처분에 대해 한리포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학회가 끝난 후 그 요약은 두 명의 회장들에 의해서 컨퍼런스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는데 그들은 그 발견들을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조사 후에 그 의정들은 그 데이터를 공공연하게 반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그 저자들(연구자들)에게도 심지어는 그 학회의 담당자들에게도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일방인들이 볼 수 없도록 지워버렸다. 그것은 복귀되지 않을 것이다”(DebatePolicy.

속해서 연대측정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과학자라면 반대자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진화론이 허구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노아홍수 때 죽거나 묻힌 공룡이나 다른 생체 물질들의 탄소 연대 측정치가 성경 역사대로 4500여 년 전으로 나오지 않고 수만 년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 생체 물질들이 죽을 당시에도 방사성 탄소 비율이 지금과 같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방사성 탄소 비율이 지금보다 낮았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고 그 결과 수천 년 된 것이 수만 년으로 계산이 되는 것일 뿐이다. 생체물질이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 동안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이 말해주고 있다. 석탄이나 공룡 뼈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도 수천만 년이나 수억 년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패러다임이 엉망이 될 때까지 진화론이 쓰러지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감출 수 있으면 감추고 위협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거짓이 미

2012년 연합국제학회, 공룡뼈 연대측정 결과 삭제 생체물질은 수천만 혹은 수억 년간 보존될 수 없어



com의 Dinosaur bones Carbon-14 dated to less than 40,000 years - Censored international conference report). 그래서 지금 그 공룡의 탄소 연대측정 결과들은 진화론자들의 검열에 걸려 이 세상에 자유롭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 입각한 검열 때

문에 창조를 지지하는 논문은 세상 학회지에 실릴 수가 없는 것이다. 공룡의 연대 측정치 외에도 화석들이 노아홍수의 증거라는 데이터는 얼마든지 있다. 창조과학자들이 2003년 미국 지구물리학회 연합회 컨퍼런스에 보고한 석탄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릴 것 없이 같은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진화론의 역사는 사실이 아니고 성경역사가 사실임이 분명하다. 최근 공룡의 뼈가 화석화 되지 않고 보존된 것이나 그 속에서 혈구, 혈관, 세포, 단백질 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진화론자들이 계

치는 영향력이다. 진화론은 복음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 교회는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란 생각이 들게 된다. 또, 만약 성경의 역사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은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겠는가?

사탄은 “정말로?”라는 질문으로 첫 사람을 속였다. 사탄은 지금도 진짜 과학이 아닌 진화론을 사용하여 동일한 질문으로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중에 공룡은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소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인 공룡은 진화를 부정하고 창조를 지지하고 있다. 이 사실이 널리 소개되어 교회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수백만 년과 진화를 믿는 크리스천 학자들도 성경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메일: mailfoa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새로운 육아법 ‘할머니 효과’

3년전 어느 날 인구보건복지부 노령화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막대한 영향력이 되어버린 이 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분들께 필요한 강의로 ‘자녀훈계법’을 강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뭘 자녀훈계법이리니... 의아해서 물어보는 제게 주희학에서 설문지를 돌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은 강의를 적어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손자손녀 버릇 잡는 법’, ‘자녀훈계법’ 등이 가장 인기가 높은 듣고 싶은 강의 주제였다고 했습니다.

현사회의 실정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조부모를 역할도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육아교육법을 배우는 조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노련한 부모의 손길로 내 자녀를 맡아 키워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집안은 실로 이 땅에서 축복 받은 집안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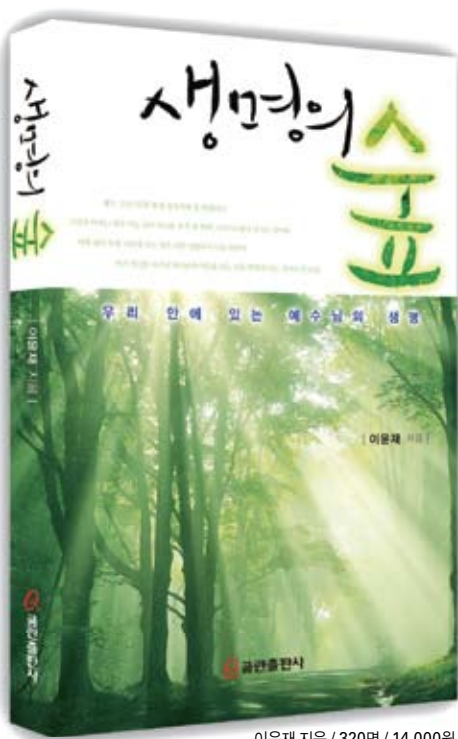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강의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필자도 예비모임을 참석해보면서 변화하는 시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위촉된 전문 강사들은 산부인과 의사,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영양학과교수, 산모와 양육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손자손녀들의 올바른 울타리를 위한 자녀교육전문가로 필자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모임을 몇 번 거친 후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보건복지부 본부에서부터 어르신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역구정으로 확산해나갔습니다.

실로 이 시대는 할머니가 아이를 책임지는 시대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다 해도 환경적으로 할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빛어내는 갈등들을 풀어주어 성공적인 육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안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다음세대를 잘 키워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조명과 함께 정확한 교육적 환경으로서의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잡해진 현대의 양육방식은 많이 변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일하는 시대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음세대의 양육을 책임지는 시대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엄마가 일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현실 속에서 엄마 혼자서 육아를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반대로 할머니 혼자서 육아를 모두 다 책임진다는 것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만큼 육아는 전문화 되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온 식구가 서로 자신의 장점을 살려 육아를 분담하여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잡힌 육아를 실천할 때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육아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육아의 부담을 한 몸에게 지고 가는 것이 싫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며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의 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고스란히 책임져야한다는 부담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좌절감과 실패감이 젊은 엄마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국가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일자리 창출을 고심하고 있는 이때에 자식을 키워 본 경험 있는 그분들을 잘 훈련하여 노련한 할머니 할아버지 전문육아전담반을 만들어 핵가족화 된 젊은 부부들을 도와주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육아법을 탄생시켜야 할 때입니다. 바로 ‘할머니 육아법’입니다. ‘할머니 육아효과’는 온 가족이 아름답게 빛어내는 새로운 육아법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퍼져 있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다음세대를 세우려는 부부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생명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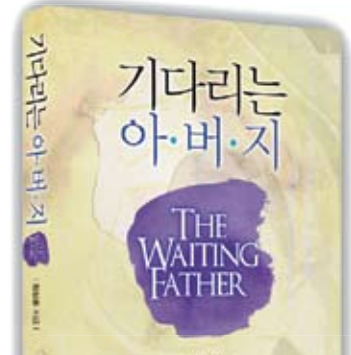
생명을 말하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예수생명 안에서 자라고 나누는 풍성한...
한신교회 이야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7-8



분당한신교회 이준연 목사

- 이준연 목사의 다른 저서들
- 성경의 은유 508면 / 17,000원
 - 변화 344면 / 12,000원
 - 성령의 초침 272면 / 10,000원
 - 성령이 임하시면 240면 / 9,000원
 - 광야의 영성 256면 / 8,000원
 -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250면 / 9,000원



기다리는 아버지

The Waiting Father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귀향”으로 잘 알려진 비유 설교집

인생의 뜻대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한다.



동래중앙교회 정성훈 목사

“집 나간 탕자를 설교할 땐 자연스레 나 자신과 오버랩 되면서 그보다 더 형편없는 자라는 생각이 몸 둘 바를 몰랐으며, 집안에 머물면서 동시에 집을 떠나 사는 첫째 아들처럼 이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위선자가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은쟁반 위의 금사과

Golden Apple on the Silver Tray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달력, 교회력

교회력과 절기에 맞추어 편집된 이 설교집은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이루기 위해 시의적절하게 때에 맞춰 선포된 말씀으로서 단순한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의 생육화가 이루어지도록 고인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이 책을 통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회복되고, 위대한 영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정성훈 지음 / 272면 / 11,000원
390면 / 13,000원



목회서신

교회와 세상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교회에만 머무르고 있다.

리고 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왔다. 그래서 세상이 말한다.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오염시켰고,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고 말았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교회로 침투하도록 버려두느냐?"는 것이다. 교회를 볼 때, 사탄 마귀는 옛날에는 믿는 성도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핍박했고, 전쟁으로 압박했고,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핍박하면 할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복음은 더욱 더 확장되고, 교회는 불 일듯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작전을 바꾸었다.

오늘날은 평화주의로 교회 나가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면서 재미(Funny)있게 교회에서 먹고, 놀고, 교제하면서, 은혜만 받고, 교회에 안주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탄 마귀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이벤트(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면서 교회대흥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대형화된 교회 주변의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는 점점 더 고사시키고 있다.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용수철처럼 사방으로 뿔뚝 나가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 사도들의 발아래 갖다 놓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므로 필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행4:32-35)고 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므로 갈등과 분쟁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싸움판이 되고 말

았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속세를 떠나 산사에서 도를 닦던 스님들이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내려와 불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교회에만 머물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이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APU한인동문회 주최 2013 아주사의 밤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봉사, 화합, 부흥하는 동문회로”

2013아주사의 밤, 광경동 새 동문회장 취임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윌레스 박사) 한인동문회(회장 광경동 목사)가 주최한 2013아주사의 밤이 9일 오후 6시 분교 이스트 캠퍼스 UTTC 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만찬, 2부 송년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예배, 3부 회장 이취임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퍼스 UTTC 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만찬, 2부 송년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예배, 3부 회장 이취임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 이취임식에서 광경동 신임 회장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화합적을 맡게 됐다. 2014년은 봉사하고 화합하고 부흥하는 동문회로 이끌어나가자 한다. 새 임원들과 함께 동문들을 섬기며 나가겠다. 학교와 APU 한인동문회를 위해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2부 예배는 동문회 부회장 승광철 목사가 찬양 인도했으며, 2012년도 회장 최장식 목사가 “전세계 아주사 디아스포라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고 김수경 동문이 특송을 했다.

이어 동문 신원규 목사(삼성장로교회 담임)가 살전 5:16-1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전 동문회장 김철수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KCTS 뉴욕기독교TV 후원음악회에서 FUMC연합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KCTS TV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

후러싱제일교회 주최, 한국일보 특별후원

KCTS 뉴욕기독교TV(사장 박용기 장로)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성탄축하 찬양의 밤이 지난 8일 저녁 후러싱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후러싱제일교회가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특별후원,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가 후원했다.

FUMC 오케스트라는 신동기의 트럼펫 솔로와 함께 ‘오 거룩한 밤’을 연주했으며 ‘마리아 품에 잠드신 예수님’과 마지막에 ‘은혜 아니면’, 양떼를 떠나서’를 연주했다.

이날 피터구 뉴욕시의원의 축사

조혜숙 자매의 사회로 장동일 목사 기도 후 시작된 음악회는 FUMC 연합찬양대(대장 이기웅 권사, 지휘 이충훈)의 '기드온의 300용사'로 문을 열었다.

샌퍼난도밸리지역교협 새회장 서종은 목사

15일 성탄 찬양제 및 장학금 수여식

샌퍼난도밸리지역 교역자협의회(회장 서종은 목사 이하 밸리교협)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서종은 목사를 선출했다. 아울러 2014년도 임원선출을 했다.

한편 밸리교협은 15일(주) 오후 5시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에서 성탄 찬양제를 개최한다. 이날 찬양제에는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못한 20여명의 학생들에게 1000달러 상당의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갖는다. 다음은 2014년도 밸리교협 임원명단이다

후 조애실 소프라노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바리톤 이배준은 '주의 기도를 각각 독창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이중창으로 찬양했다.

이어 FUMC 여성중창단은 '시편 23편'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밀알 크리스탈 핸드벨 앙상블은 'We Three Kings', 'I've Got Peace Like a River'를, 뉴욕새소망합창단은 'Have Yourself Merry Little Christmas'와 '고개 들어 찬양하라/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을 연주했다.

KCTS 소개 영상을 상영한 후 김영호 장로(워싱턴 기독교복음방송 회장)가 헌금기도를 했으며 후러싱제일교회 청년부 워십팀이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에 맞춰 공연을 벌였다.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KCTS 뉴욕기독교TV는 1999년 개국 이래 미동부 일대 타임워너케이블 채널 533을 통해 24시간 방송되고 있다. (유원정 기자)

‘Doing에서 Being으로’

LA청년사역자 모임, 10개 교회단체서 참여

LA 청년사역자 모임이 9일 오전 10시30분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 EM재플실에서 열렸다. 이날 갈보리말씀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 세계대교회, 아름다운교회, 애나하임 엘림선교회, 올림픽장로교회, 제자들교회, 하나님의꿈의교회, 나눔선교회, KCCC 등의 사역자들이 참여했다.

그는 “현재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이다. 이는 한인교회의 노령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인교회는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사역중심의 사역을 해왔다. 즉 Doing만이 강조돼왔다. 이는 교회 성장학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인데 현재 한인교회는 교회성장학의 오류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Being이 빠진 채 Doing만이 강조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행복한 목회자가 되길 바라신다”고 언급하며 “사역을 잘 해서 성공

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행복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하며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목회현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린 LA지역 청년사역자 모임에서 정장수 목사가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부목사님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는 풀타임 부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1. 자격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M.Div) 2)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에 한함 3) 이중언어할 수 있는 분
2. 구비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증명서 3) 학력 증명서 4) 설교 CD 2개 5) 목사님 추천서 (2인)
3. 제출마감 2014년 1월 31일
4. 제출처 1) 주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2) E mail: yspcpastor@gmail.com
5. 문의 김인광목사 (215-385-6086)

영생장로교회 담임 이용걸목사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East Asi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checkboxes for subscription type and language preference.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동부교계 게시판



이영섭 목사 성역50주년 및 원로목사 추대예배
 불티모어장로교회 담임 이영섭 목사의 성역 50주년 기념 및 원로목사 추대예배가 오는 29일(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영섭 목사는 동 교회를 30년간 시무했다.
 ▲문의: (410)337-9448

선교후원 찬양음악회
 엘피스찬양선교단(단장 김경길)과 뉴욕서울장로교회(담임 신우철 목사)가 주최하는 필리핀 태풍피해자를 돕는 선교후원 찬양음악회가 오는 20일(금) 저녁 7시 뉴욕서울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출연은 강지담(싱어송라이터), 김영환(테너), 박성환(피아노), 배영란(소프라노), 우병만(교회일보), 뉴욕크리스천밴드.
 ▲문의: (917)683-5045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신임회장에 최웅렬 목사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이 지난 4일 낮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최웅렬 목사를 선임했다. 최웅렬 목사는 제25대 뉴욕교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후러신나사렛교회를 은퇴했다. 총무 신현택 목사, 서기 김원기 목사는 유임됐다.

뉴욕리폼드신학대 2013가을학기 종강예배

뉴욕리폼드신학대학교(학장 유상열 목사) 2013 가을학기 종강예배가 지난 8일 저녁 본교에서 열렸다. 이날 설교는 지난학기 성경해석학을 강의한 이윤석 목사가 맡아 골로새서 1장 23-29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배웠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임마누엘을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비상한 일꾼이 되려면 과거 믿음의 선배들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또 "신학성의 기본은 복음에 대한 감격과 확신으로,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 복음에 견고한 사역자, 봉사자에 대한 확실한 목표(예수그리스도의 영광)가 있는 일꾼, 고난의 가치를 확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장 유상열 목사는 이날 학생들에게 코스웍은 마쳤지만 논문을 쓰지 않으면 졸업장을 받을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내년 1월중 논문작성법 특강이 있다고 광고했다.

뉴욕리폼드신학대 2014년 봄학기는 2월 18일(화) 특강을 시작으로 개강한다. 웹사이트 www.NYRBS.org 참조.

(유원정 기자)

2014년 행사계획안 예산안 통과 뉴욕교협 제 40회기 첫 임실행위원회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 제 40회기 첫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9일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열려 2014년 40회기의 모든 일정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재덕 목사(부회장) 인도로 기도 김홍석 목사(수석협동총무), 말씀 송병기 목사(증경회장), 광고 송일권 목사(서기), 축도 양승호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병기 목사는 "주께 받은 사명"(행20: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라며 "복음전도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신도선교사들도 확신된 선교가 2010년 미전도종족이 1500만명만 남았다. 이방인의 때가 차고 있다. 이 시대에 교협이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김승희 회장 사회로 개회기도 이주익 장로(부회장), 회원집명 송일권 서기, 업무보고 장경태 총무의 순서로 진행됐다. 교협은 지난 11월 12일 총영사관이 주최한 천혜성 통일정책실장 설명회에 참석해 기도했으며 14일에는 40회기 취임



뉴욕교협 첫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배 및 시무식을 가졌다. 또 현재 필리핀 이재민 모금(재해분과 장재웅 목사)으로 현재 13교회에서 13,445달러를 모금했다. 이 모금은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또 이웃사랑실천모금(구제분과 이상정 사관)은 30일까지 마감한다.

이외에 2014주소록(위원장 이재덕 목사)은 교회광고는 서기부가 사업체 광고는 이사회에서 담당기로 했다.

이날 안건으로 통과된 40회기 사업 및 행사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임실행위 일정: >2차 2014년 3월10일 뉴욕안디옥순복음교회 >3차 6월9일 한인동산교회 >4차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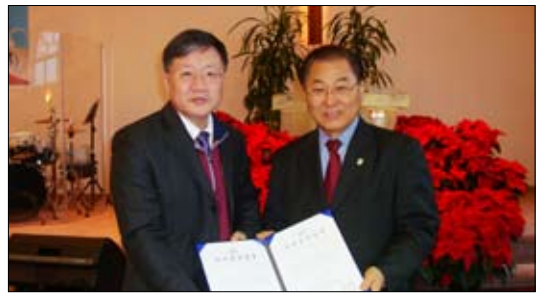
8일 뉴욕주정교회(미정) △신년하례식: 2014년 1월 14일(화) 오후 7

시, 준비위원장 황영진 목사, 박영진 장로, 예약 12월 31일까지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4월 20일(주) 새벽 6시, 준비위원장 박병준 목사 △청소년농구대회: 4월 12일(토) 김지옥 전도사, 황영송 목사, 유스미니스트 리네트워크 △성지순례: 4월 28일-5월 6일, 로마, 신정마감 1월 3일, 준비위원장 김상태 목사 △선교지 탐방: >제1차 5월 도미니카 및 아이티, 목회자 무료건강진단 >2차 7월 장로(장소 미정) △체육대회: 5월 26일(월) 준비위원장 이창남 목사 △할렘루야대회: >성인 6월 13-15일 강사 김삼환 목사, 준비위원장 이풍삼 목사 >청소년 9월4-6일 △임시총회: 7월 21일(예정) △총회: 10월 21일(월), 뉴욕사랑의교회.

또 예산안은 425,000달러를 통과시켰다. (유원정 기자)

선교의 새 패러다임 '전문인 선교' 설교클리닉, 김태연 목사 강사로 선교세미나

(재)한국세계전문인 선교원 대표원장 김태연 목사를 강사로 한 선교세미나가 설교클리닉 회원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뉴욕행복한국교회(담임 이성현 목사)에서 열렸다.



세미나를 주도한 황동익 목사(뉴비전교회 담임)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의 삶"이라며 "다음 세대에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선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며 강사를 소개했다.

이날 김태연 목사는 1세대(IT이후 시대)를 대비하며 선교의 새 패러다임으로 전문인선교를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오늘날 선교는 세분화 돼 있으며 시대에 따른 창의성과 시대성 융통성 있는 선교가 필요하다며 현대는 국내외 선교, 장단기 선교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다

고 말했다. 또 바울의 3차 여행부터 시작된 자비량선교가 바로 전문인 선교라며 목회자들이 은퇴후 비즈니스를 하며 전문인 선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문화적 혼혈시대를 사는 오늘날 전통적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세계 경제의 수도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전문인 선교가 중요하며 디아스포라와 전문인 선교가 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 김태연 목사는 천대인전문인선교교회 담임목사, 라이즈업코리아 운동본부 법인이사, 한국모산중앙위원회 총무, 한국기독교부흥사학회 공동회장, 한국신학회 총무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합창단 제1회 연주회에서 뉴욕성가단과 함께 합창하고 있다.

"찬양으로 뉴욕에 영적 새바람" 뉴욕목사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성료

청소년 마약퇴치기금마련을 위한 뉴욕목사합창단(단장 김중훈 목사, 지휘 이다윗 목사) 제1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8일 뉴욕에일장로교회(담임 김중훈 목사)에서 열렸다. 단장 김중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찬양에는 영적 감화력이 있다"며, "이 감화력으로 뉴욕에 영적 새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공연에 앞서 열린 예배는 총무 지인식 목사 사회로, 기도 황영진 목사(선한목자교회), 성경봉독 김상태 목사(서기), 메시지 김승희 목사(뉴욕교협회장), 헌금기도 김태준 목사(회계), 인사말씀 김중훈 목사, 축사 손성대 장로(뉴욕장로성가단 단장), 축도 김수태 목사(뉴욕어린이양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지휘자 이다윗 목사와 반주자 정지은 선생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2부 공연은 뉴욕목사합창단 외에 뉴욕장로성가단, 뉴욕에일교회 여성트리오, 지인식 이정은 부부듀엣, 마이올린 유안하, NY코리안브라스, 소프라노 유경화 씨가 공연해 다양함을 보였다.

뉴욕목사합창단은 "주는 나의 참목자(시편23편)", "주님 오실 하늘 바라보며", "주여 평화를 주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합창했고 중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래했다.

이날 정기연주회를 통한 수익금은 중독자 재활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전달해 청소년 중독치유사업 및 마약퇴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뉴욕중부교회 제5회 자선음악회 '메시아' 공연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지난 1일 퀸즈칼리지 폴든 오라토리움센터에서 '메시아' 전곡 공연을 가졌다. 올해로 5회째 갖는 자선음악회로 뉴욕의 정상급 솔리스트들과 교회합창단원 75명이 협연했다. 1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탄생을 밝고 평온한 분위기로, 2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수난 그

리고 속죄가 매우 감동스런 합창곡 위주로,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노래했다. 이날 티켓 판매 등으로 마련된 후원금은 아이티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For Hope International'과 뉴욕가정문제연구소에 전달됐다.

(기사제공: 뉴욕중부교회)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총 2만4천여 달러 모금 39곳 참여 2013 사랑의 쌀 성금 제4차 전달식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2013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제4차 성금전달식이 5일 오후 2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사) 사무실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6일까지 모금된 성금은 총 2만 4030달러(약정 포함)라고 밝혔다. 남가주교회협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랑의 쌀 성금은 개인과 사업체, 단체 등 38곳에서 보내왔으며 특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성공회, 원불교 등 한인 종교단체는 범종교적으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고 박효우 목사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경제적으로 위축됐었다. 이러한 여파로 작년에 비해 모금이



제5차 사랑의쌀 나눔운동 제4차 성금전달식에서 박효우 남가주교회 협장이 배무한 LA한인회장에게 성금을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 김달생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 스카이 로즈 채플에서 열렸다

고 김달생 목사 천국환송예배

고 김달생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7일 오전 9시30분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 스카이 로즈 채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조객들이 참여했다. 향년 78세. 원차희 목사(코로나 갈보리장로교회)의 집례로 시작된 입관 및 발인예배는 공창락 목사가 기도, 원차희 목사가 '죽어도 살겠다'(요 11:25-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풀리 목사가 조가를 불렀으며 아들 김은성이 조사를, 배수호 목사가 약력소개를 했으며, 조카손자 김성민이 찬송했다. 이날 예배는 신현국 목사(복음대학교 학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하관예배는 고남철 목사가 기도했으며, 원차희 목사가 '비밀'(고전15:51-5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김달생 목사는 1935년 11월5일 경남 사천에서 출생, 부산 고려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용산총회신학원(현 사당동 총신대학)을 수료하고 대한신학교를 졸업했다. 1965년 고신총회 소속 경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69년 건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72년 미국유학차 도미, 유니온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5년부터 2006년까지 오렌지장로교회를 개척 시무했으며, 84년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알라스

카 에어리지 크루세이드에서 통역했다. 88년 남가주교회 협회장과 남가주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91년부터 2003년까지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학장 및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고인은 2013년 11월 28일 추수감사절 저녁 취침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다. 유족으로는 아내 김인옥 사모, 장남 김은호, 자부 김정운, 차남 김은성, 자부 김보혜, 장녀 장은숙, 사위 장우광, 손자 주환, 지성, 정우, 정규, 손녀 해원, 혜선, 지은, 동생: 김차생(아내 함영옥), 김덕생(아내 김정애), 김경생(아내 김양자) 등이 있다.

(박준호 기자)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사) 사무실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6일까지 모금된 성금은 총 2만 4030달러(약정 포함)라고 밝혔다. 남가주교회협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랑의 쌀 성금은 개인과 사업체, 단체 등 38곳에서 보내왔으며 특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성공회, 원불교 등 한인 종교단체는 범종교적으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고 박효우 목사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경제적으로 위축됐었다. 이러한 여파로 작년에 비해 모금이



LAKMA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음악회가 8일(주일) 오후 7시 30분 한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LAKMA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잇 성황 학생 3명에 총 6천 달러 장학금 수여

LAKMA(LA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이사장 최승호)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잇 음악회가 8일 오후 7시30분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LAKMA 채임버 콰이어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해 청중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또한 피아니스트 조셉윤과 소프라노 클라라김의 재즈 앙상블과 소프라노 김혜진, 테너 로버트 맥넬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으며, 보이소프라노 김다니엘이 LAKMA 채임버 콰이어와 함께 벨라판타지아를 불러 LA 겨울밤을 따스하게 꾸어갔다.

한편 이날 장학금 수여식도 거행했는데 바이올린리스트의 길을 가고 있는 김윤미 학생(뉴잉글랜드

음악학교)에게 1등 장학금 3천 달러와 박예슬 학생(샌가브리엘 미션 하이스쿨) 2등 장학금 2천 달러, 작곡가 김조셀(arising media)에게 1천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LAKMA는 장학금 수여 배경에 대해 "실력이 있어 장래가 촉망받지만 경제적 환경이 여의치 못해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라크마에서는 이러한 약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고자 장학금제도를 마련했다. 선발조건은 학업성적 외에 신청자들의 에세이를 받았다. 여러 학생들의 에세이를 검토한 결과 눈물이 날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음악학교)에게 1등 장학금 3천 달러와 박예슬 학생(샌가브리엘 미션 하이스쿨) 2등 장학금 2천 달러, 작곡가 김조셀(arising media)에게 1천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LAKMA는 장학금 수여 배경에 대해 "실력이 있어 장래가 촉망받지만 경제적 환경이 여의치 못해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라크마에서는 이러한 약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고자 장학금제도를 마련했다. 선발조건은 학업성적 외에 신청자들의 에세이를 받았다. 여러 학생들의 에세이를 검토한 결과 눈물이 날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ANC 온누리교회 뮤지컬 공연

ANC 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성탄절 창작 뮤지컬 '크리스마스 레퍼' 공연이 오는 22일(주)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818)834-7000

새한교회청년부 유학생 초청의 밤

LA지역 새한교회(담임 정세훈 목사) 소속 한어청년부(담임 김유정 목사)는 오는 14일(토) 오후 4시 '유학생을 위한 초청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알렉스차(이민법 변호사), 정경환(LA시 시니어케미스트리), 크리스티나장(영어교사)이 상담가로 나서 법률 및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는 목적으로 행사를 계획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된다. 주차장에서 행사가 열리는 관계로 참석자들에게 작은 답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문의: (213) 386-0685

베데스다대학교 크리스마스 콘서트

베데스다대학교(설립자 조용기 목사)는 동문과 교수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18일(수) 오후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323)317-3749/최명상 회장, (714)616-2193/김지연 부회장

나침반교회 제1회 이웃초청 기타콘서트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친교그룹사역원(사역원장 안병화 집사)이 주최하는 제1회 이웃초청 기타콘서트가 14일(토) 오후 6시에 개최된다.
▲문의: (562)691-0691

로봇다리 세진이 엄마 감동의 이야기

LA 성시화운동본부, 하이어플링 준비위원회, KCCC가 공동주최한 로봇다리 수영왕 세진이 어머니 양정숙 여사의 간증집회가 20일(금) 오후 7시 동양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22일(주) 오후 6시 소망교회(담임 주성영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323)466-1234/동양선교회, (562)522-9838/소망교회

행복한교회 커넥션 2013 콘서트 성황

월넛에 위치한 행복한교회(담임 장경훈 목사 1716 S.Brea Canyon Cutoff) 청년부는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지난 7일 오후 7시30분 Connection 2013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색소폰 연주자 켈빈박, 찬양가수 최윤영, 허지애, 밴드 핸드메이드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월넛시에 위치한 행복한교회에서 열린 커넥션 2013 콘서트에서 찬양가수 최윤영 씨가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하고 있다

거리문화사역 텐트미니스트리 오픈파티 한인 타운 한복판서 연주, 커피 간식 제공

주말저녁 술과 담배 등이 난무한 한인 타운 한복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거리로 변화시키고자 마련된 신개념 크리스천 거리사역이 시작됐다. 텐트미니스트리(대표 방다니엘 전도사, 이하 텐트)는 6일 저녁 7시 30분 월서와 뉴햄프셔에 위치한 거주영역학교 주차장에서 텐트오픈파티를 열고 크리스천 거리문화사역을 시작했다. 이날 파티는 3인조 크리스천밴드 지미유가 특별출연해 큰 호응을 얻어냈으며, 텐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모여 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타와 드럼 연주소리를 접한 외국인들이 파티장소를 방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텐트는 한인 타운 내 젊은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줄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그들이 술집과 노래방 등 유흥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활동무대인 한인 타운 한복판에서 사역을 시작해 한인 타운 젊은이들의 문화에 작은 변혁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텐트는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거주영역학교 파킹장에서 열리게 된다. 파킹장에 텐트를 치고, 조명을 켜고,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파는 것과 같은 것



거리문화사역 텐트미니스트리의 오픈 파티가 거주영역학교 파킹장에서 열렸다

아면 커피와 그 자리에서 직접 구운 소시지를 넣은 핫도그를 무료로 제공한다. 텐트 미니스트리는 한인 타운을 방문하는 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0일(금) 저녁 7시3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S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방문 (비올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f,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Kam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길을 묻는 아버지... 응답하라, 교회

[미션라이프] 최근 안방극장과 극장가에 '아버지 열풍'이 거세다. 예능 프로그램인 MBC '아빠! 어디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최근 개봉된 영화 '하어로' '소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모두 아버지의 부성을 다룬다. 그러나 대중에게 소위 잘 먹히는 '부성에 코드'라도 현실에선 힘

한 경력은 거기까지였다. 은퇴 후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아들은 독립 후 A씨에게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는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간 남편의 공백에 힘겨워하던 아내는 은퇴 후 집에 돌아온 A씨를 반기지 않았다. 사소한 것부터 아내와

은퇴 후 가정에서 설 곳 없는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보듬는 문화 창출해야

을 잃는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아버지들이 경제력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문제는 직장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도 아버지가 설 곳이 마땅찮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시절, 고개 숙인 아버지에게 가족들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라며 격려하고 응원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다. 직장에 아버지를 뺐었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은퇴 후 가족에게 군림하려는 아버지가 어색하고 귀찮기만 하다. 현금 잘 내던 집사·장로였지만 같 이상 실직자가 돼 보니 교회에서 그다지 할 일이 없다. 어느새 '하숙생 남편' '용돈기계'란 말이 깊이 공감되고, 가족과 세상에 불만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불황 속,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는 아버지들이 갈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회사가정에서 설 곳 없는 아버지

크리스천인 60대 남성 A씨는 내로라하는 금융기관에서 일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20년 이상 유능한 금융인으로 살아온 그를 우러러봤다. A씨 스스로의 자긍심도 높았다. 높은 연봉에 두둑한 보너스까지...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최고의 아버지라 자부했다. 하지만 화려

의견 차이를 보이던 그는 결국 집을 떠나 원룸에서 지내야 했다. A씨는 "변듯한 집과 차를 사 주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 믿었다"며 "내가 자랑하고 이뤄놓은 성과가 가족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지 전혀 몰랐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 세대(1955~1963년생)의 자화상이다.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을 위한다고 믿었지만 아내와 자녀의 반응은 냉담하다. 직장을 잃어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권위를 잃었는데 가족마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다. 부부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 이혼서류를 받기도 한다. 이른바 '황혼이혼'이다.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은 은퇴 후 분노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제 베이비부 세대 은퇴자는 사회적 상실감뿐 아니라 가족 간 소외감과도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를 가부장제의 약화와 평생직장·고용보장 신화가 무너진 데서 원인을 찾았다. 이 교수는 "과거엔 돈을 벌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가정에서 모든 결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 불황으로 연세든 직장을 잃을 수 있게 되면서 가부장적 권위가 점차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비부

세대 아버지일수록 은퇴 후 '훈련 받은 무능력'(trained incapacity) 현상을 보인다고 했다. 훈련받은 무능력은 미국 경제학자 베블린이 처음 만들어 낸 말로 이제까지 잘 발휘되던 능력이 새로 변하는 상황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무능력과 부작용으로 나타나 는 현상을 말한다. 즉 조직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가장일수록 은행 업무, 가족과 대화하는 법 등 일상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이 교수는 "일상에 무능력하지만 가족에게만은 권위적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세대 아버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를 보듬을 수 있는 교회 문화 만들자

직장과 가정에서 상처받은 은퇴한 아버지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가정사역전문가들은 교회 역시 흔들리는 아버지를 잡아줄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교회의 대소자가 여성 중심으로 꾸러져 있어 중년남성이 신앙을 기울 만한 사역조차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이이수 남성사역연구소장은 "한국교회와 남성과 아버지를 위한 목회적 돌봄 사역과 양육시스템을 적용해 인생길을 잃은 이들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남성을 위한 교회 안 큐티모임, 인생설계학교, 기도모임 활성화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버지들이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찾도록 체험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희진 부천YMCA 아버지교실·젊은아빠모임 협력간사는 소모임 등에서 생애주기적 가정을 버리고 생애주기에 맞는 역할을 찾아 나가라고 권했다.

"성북구, 동성커플 '혼인신고 반려' 환영"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성명

기독교사회책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244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은 "동성 커플" 김조광수·김승환씨가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한 것과 관련,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서대문구의 방침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합은 9~10일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견해를 담은 법률의견서를 서우 서부지방법원과 서대문구에 전달했다.

한국교회연회도 이날 논평에서 "국가기관이나 지지체들이 국민정

서나 윤리에 반하는 동성애를 위한 일에 앞장서면 우리나라가 동성애 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가 피해를 증폭시킬 동성애의 심각성을 깨달아 분명한 경계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성북구청 앞에는 72개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태희 목사) 회원들이 지난 5일 성북구 의회가 통과시킨 주민인권선언문 제정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성북구는 주민인권선언문 가운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하며 "앞으로 항의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콩고 음반자 부족 언어 성경

대한성서공회, 1만부 제작 전달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동권 목사)는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반포센터에서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음반자어 성경 1만부를 보내는 기념예배를 가졌다. 이날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성경전서는 내년 2월 말쯤 DR콩고의 마타디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1998년 음반자어로 번역된 신약성서 일부가 보

급했으나 성경전서가 배포되는 것은 처음이다.

DR콩고 북서쪽 국경지대에 사는 음반자 부족은 주로 커피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일하며 오랜 내전으로 경제 상황이 열악하고 의료 및 교육 시설도 낙후돼 있다. 음반자 부족 30여만명에게는 1900년대 초 처음 복음이 전해졌으며 현재

복음화율은 30% 정도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말 DR콩고성서공회로부터 음반자어 성경 제작을 요청받았다. 성경 번역은 2010년쯤 완료됐으나 제작비가 부족해 성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예정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로부터 4000만원을 후원받아 성경을 제작했다.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윤여식 장로는 "음반자 부족들이 복음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교/계/단/신

"'연명의료중단' 입법 아직은 시기상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법안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생명침해를 할 개연성이 있는 입법인 만큼 정부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기결정권이 생명을 유지 보호하는 방향으로 권리 행사돼야 하며, 환자상태에 대한 판단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면, 지난 5일 이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협회측은 또 연명의료 결정법안과 관련해 혼수상태의 환자는 임종

기 환자 범주에서 제외하고, 연명의료 중단이 직접적 사망원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법안에 삽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입법화는 호스피스와 같은 완화 의료 제도의 안정적 시행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자연, 종교자유침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국교회연회(한국교연·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10일 성명을 내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종교의 자유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연은 지난 6일 종자연이 서울 시청 앞에 설치된 성당트리가 종교중립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명백한 종교 자유 침해이며, 기독교에 대한 목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연은 이어 "종자연이 본연의 업무를 넘어 특정종교를 간섭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461-2810(Fax 김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월 할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32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전 8:30 금요(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36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오전 1:30 화요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매주 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8:3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금요기도회: 오전 12:30 수요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기도회: 오후 8:30 금요성경공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222(교회), Fax: (732)537-8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목요찬양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절영어예배: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 오후 8:30 NCP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pvac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3: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요일: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579-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ccdc.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5)222-08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85 1550 Woburne Rd., Levittown, PA 19057		밴앨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영어: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4)461-1235, Fax: (414)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형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영 아 예 배: 오전 11:00 영 아 예 배: 오전 11:00 영 아 예 배: 오전 11: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6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예배: 새벽 6:00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998)888(경음)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모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모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스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li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5 수요찬양: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토요일: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루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53)9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2:00(월/토) Tel: (253)636-6207, 531-8424 Fax: (253)636-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병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pcz.org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토요일: 오전 6:00(토)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www.kucp.org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이슬람권을 위한 목요기도운동

이슬람권의 성도들,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1) 이슬람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치르는 대가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고난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누리게 하소서.

2) 영적 리더들을 더 많이 보내셔서, 무수히 돌아오고 있는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복음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도우소서.

3) 수단과 남수단의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생수가 터져 나와서 영적인 회복과 토지의 회복이 신속히 이뤄지게 하소서.

4) 이라크와 모든 중동지역의 극심한 핍박에도 끝까지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환난으로 연단된 성도들이 정결같이 나오게 하소서!

5)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붙잡아 주소서. 복음전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6) T국 H 선교사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합당한 장소와 재정을 허락해 주소서.

무슬림들의 구원과 이슬람권 국가를 위한 기도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2:10-11).

1)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17억 무슬림들에게도 미치게 하소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자유를 얻어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성경과 미디어에 접하게 하시며 꿈, 환상,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3) 이집트의 새헌법 제정을 주관해주시고,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소서.

4) 이란이 핵협상에서 약속한 것을 진실되게 이행하게 하소서. 국제사회의 제재완화가 약한 정권이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이 아니라 이란 국민들의 삶과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5) 시리아 내전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수많은 난민들과 여인들이 보호받게 하시며, 무고하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주소서

6)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의 유흥과 살상이 그치지게 하소서. 무슬림들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7) 이슬람권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여성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종교를 빙자한 인권유린과 범죄가 끊어지게 하소서.

한빛부대, 강도 위기 처한 남수단 거주 한국인 3명 구출

남수단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가 강도 위기에 처한 현지 거주 한국인 3명을 구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3일 밝혔다.

남수단 중콜레이주 보르시에 주둔한 한빛부대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현지시간) 부대 인근 초목우산 어린이재단 숙소에 무장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비정기구(NGO)인 초목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해 4월부터 남수단 주부와 보르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아동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AK소총으로 무장한 괴한 6명은 창문을 깨고 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해 문을 열게 한 후 숙소에 침입해 현지인 태권도 사범을 집단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 사범은 심각한 두부 외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무실 건물에서 잠자던 한국인 직원 3명은 태권도 사범의 비명을 듣고 화장실로 피신함과 동시에 한빛부대 지휘통제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한빛부대는 즉각 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의 지휘 하에 기동타격대를 출동시켰다. 기동타격대장인 김

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의 안전도 책임지는 한빛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쿠크’ 날로 크는데... 손 놓은 한국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가의 남서쪽 사사나 키장에 위치한 이슬람금융센터(MIFC)는 첫인상부터 화려한 외관으로 방문객을 압도했다. 인구 3000만명도 안 되는 말레이시아가 세계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슬림의 자금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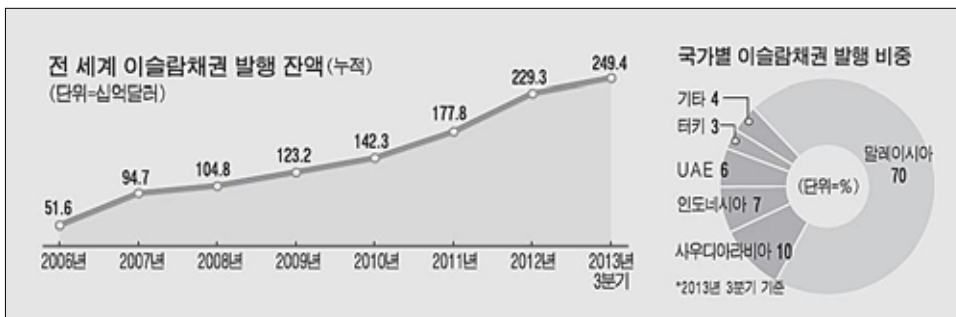
이슬람금융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기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말레이시아에 런던 홍콩 등 기존 금융도시들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최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나서 런던을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서방국가 중 처음으로 이슬람금융의 대표상품인 수쿠크를 내년 2억파운드(약 3400억원) 발행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홍콩은 수쿠크 발행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이슬람금융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오일머니’로 대표되는 중동 자금이 넘쳐나면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MIFC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08년 1048억달러 규모였던 이슬람채권(수쿠크)의 발행 잔액은 올해 28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언스트앤영은 향후 4년 후 수쿠크에 대한 전세계 수요가 9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매년 수쿠크의 신규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210억달러 규모의 수쿠크가 발행됐지만 지난해에는 1312억달러로 6배 이상 급증했다.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는 곳은 말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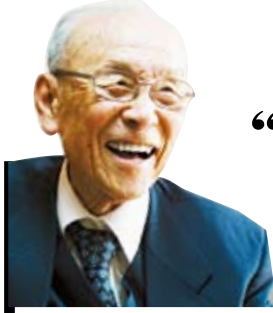
장순 대위는 이동 중에 무장강도가 한국인 직원들이 거주하는 사무실에 침입하기 위해 잠금장치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서부터 불빛과 사이렌을 통해 무장강도를 압박했다. 무장강도들은 사이렌 소리 등에 놀라 기동타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상황접수부터 상황중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한 시간 남짓으로 치밀한 사전 준비와 훈련 덕분에 큰 인명 피해 없이 구출작전을 완수할 수 있었다.

한빛부대는 지난달부터 주둔 지역에서 무장강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대비해왔다고 한다. 부대장인 고 대령은 “앞으로도 남수단 재건지원 임무뿐만 아니라 이

시아다. 2002년 처음으로 수쿠크를 발행하기 시작한 말레이시아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수쿠크 발행국이 됐다. 국가별 이슬람채권 발행 비중을 보면 말레이시아가 70%에 달한다. 정부의 강력한 이슬람금융 촉진 정책에 지리적·문화적 이점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이슬람금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이슬람금융을 허용하기 위한 세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이후 사실상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16면으로 계속)



방지일 칼럼 (19)

“본대로 들은 대로”

원(圓)을 그리는 역군

복음이 역군들의 하는 일은 원을 그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원은 그 대소 원이 다양하기도 하다. 작은 원 큰 원 공이 동글한데 작은 탁구공 같은 원, 그보다 작은 원도 무수하다. 그보다 큰 원도 무수하다.

원은 중심을 잡고 그 반경을 고정시킨 중심에서 둘러질 때 그려진다. 반경이 작으면 작은 원이 그려지고 반경이 크면, 길면 그 반경에 따라 원은 커진다. 크고 작은 원의 수치를 원주율이라 하겠다. 중심도 고정해야 한다. 중심이 움직이면 원은 그려지지 못한다.

우리 목사들은 자기 역량대로 원을 그리고 있다. 내 역량에 맞게 주신 달란트대로 원을 그리게 된다. 주신 또 받은 반경은 작는데, 짧은데 큰 원을 그릴 수는 없다. 작으면 작은 대로 원을 그려 만족하다. 원의 중심 그 요지부동의 중심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함보다 중심이 동하면 원은 못 그린다. 큰 원을 꼭 그려야 한다는 법이 없다. 나는 내 달란트로 역사하면 원은 그려진다. 원이면 만족하다.

원의 한 원리가 중요한 바를 알게 한다. 작고 큰 원의 분간이 없이 모든 원은 4 직각 360도이다. 작다고 그 각도가 작아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큰 원 지구만한 그 원 그보다 더 큰 우주가 동글다하거나 그 초록대 원이라도 같이 360도 일뿐이다.

스케일이 큰 분은 작은 원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큰 원을 그려 크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있어 무리한 욕구 만족을 허락함은 아니다. 우리 나그네 삶에 있어 부름 받은 하나님의 역군들은 우선 원을 그려 만족하다. 작은 원도 좋다. 360도의 원으로 만족하다. 이는 그 중심이 잡혀 있는 증거이다. 고정된 중심으로 살아 만족하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 스케일을 크게 하신다. 내 능력이 자라게 된다.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다. 무리하지 말고 스케일이 커질 때 큰 원을 그릴 수 있다 함이다.

갑각(甲殼)동물의 성장을 나는 어려서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눈동자에서 본 일이다. 게 한 마리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기에 가서 집었다. 게 형상은 분명한데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속은 전혀 없다. 빈껍데기뿐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죽은 게라면 요렇게 빈껍데기만 있을 수 있을까 만져보면서 면밀하게 살펴볼수록 이상하기만 하였다. 좀 떨어진 곳에 게 한 마리가 거머잡을 듯 보였다. 얼른 가서 또 집었다. 웬일인가 말랑말랑한 것이다. 게는 게인대 걸질 없는 산 게였다. 여기서 게가 탈피한 것을 알게 될 때 갑각동물이 이렇게 크는구나 함을 알게 된 것이다.

갑각동물은 속으로 알차게 성장했을 때 탈피하며 자란다. 허물을 벗는다. 그 강한 갑옷을 벗고 다시 다른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 갑옷이 되기 전 말랑말랑한 것을 내가 집었던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한 교훈을 얻는다. 내 능력이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다고 자부하여 무리하게 역사할 때는 조정을 잃고 만다. 작은 원을 바로 중심을 꼭 하고 그려 그 내용이 충실하게 알차게 되어질 때 탈피하며 자라는 갑각동물같이 그 작은 원에서 탈피하여 큰 원을 그릴 수 있다 하겠다.

목회자들 중에 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큰 교회를 선호한다. 노골적으로 그런 요청을 듣기도 했다. ‘내 힘으로는 이 교회는 너무 적습니다. 큰 교회로 인도해주세요. 큰 교회 목회할 능력이 내게는 있습니다’의 청이였다. 나는 이 게의 탈피 성장함을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작은 교회로 되 거기서 360도의 원을 바로 그리면서 일할 때 내적 충실로서 탈피하여 그 교회가 크게 자람을 본다. 알터로 큰 곳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있는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큰 원은 작은 원을 그린 그가 성장하여 그 내실에서 탈피하여 큰 원을 그리게 된다.

질이나 양이나 질의 내적 충실에서 양의 충실로 전진함이 원으로 받는 교훈이다. 내 역량은 늘 교회를 섬길만 한데 이 작은 교회는 내게 맞지 않는다는 주체 넘는 생각을 원을 그리지 못하는 양상이다. 작은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탈피하여 자라는 이치를 바로 실천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역군이리라(마25:21).

하나님께서 내 작고 큰 것을 보심이 아니라 내 총, 불충을 보신다. 내 능, 불능을 보심이 아니라 총, 불충을 보실 뿐이다. 중심이 바로 잡혔을 때 매일 같이 원은 내 역사에 그려진다. 작은 원이 내적 충실을 기할 때 반드시 탈피하여 더 큰 원이 그려진다. 매일 같이 원을 그리거나와 매일 같이 탈피하여 더 큰 원을 그려나가는 역사가 주의 역군들의 일이다.

(1996년, 1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헌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학교: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20 주일3부예배: 오전 9:40 주일4부예배: 오전 11:10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lark.com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23)466-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말씀성경학교: 오전 5:30 동요예배: 오전 6:30 EM/대학당: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어학교: 오전 11:30 영어학교: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목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전 6:00(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9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10 주일3부예배: 오전 11:1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10 (KCC/한국어예배) 주일4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younglark.com	등문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Pico/Fairfax)	등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30(영성)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있는 우리의 동행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선교의 열매”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통/복음/영성),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30 영어3부예배: 오전 11:30 영어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626)793-06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주일7부예배: 오후 1:30 주일8부예배: 오후 1:30 주일9부예배: 오후 1:30 주일10부예배: 오후 1:30 주일11부예배: 오후 1:30 주일12부예배: 오후 1:30 주일13부예배: 오후 1:30 주일14부예배: 오후 1:30 주일15부예배: 오후 1:30 주일16부예배: 오후 1:30 주일17부예배: 오후 1:30 주일18부예배: 오후 1:30 주일19부예배: 오후 1:30 주일20부예배: 오후 1:30 주일21부예배: 오후 1:30 주일22부예배: 오후 1:30 주일23부예배: 오후 1:30 주일24부예배: 오후 1:30 주일25부예배: 오후 1:30 주일26부예배: 오후 1:30 주일27부예배: 오후 1:30 주일28부예배: 오후 1:30 주일29부예배: 오후 1:30 주일30부예배: 오후 1:30 주일31부예배: 오후 1:30 주일32부예배: 오후 1:30 주일33부예배: 오후 1:30 주일34부예배: 오후 1:30 주일35부예배: 오후 1:30 주일36부예배: 오후 1:30 주일37부예배: 오후 1:30 주일38부예배: 오후 1:30 주일39부예배: 오후 1:30 주일40부예배: 오후 1:30 주일41부예배: 오후 1:30 주일42부예배: 오후 1:30 주일43부예배: 오후 1:30 주일44부예배: 오후 1:30 주일45부예배: 오후 1:30 주일46부예배: 오후 1:30 주일47부예배: 오후 1:30 주일48부예배: 오후 1:30 주일49부예배: 오후 1:30 주일50부예배: 오후 1:30 주일51부예배: 오후 1:30 주일52부예배: 오후 1:30 주일53부예배: 오후 1:30 주일54부예배: 오후 1:30 주일55부예배: 오후 1:30 주일56부예배: 오후 1:30 주일57부예배: 오후 1:30 주일58부예배: 오후 1:30 주일59부예배: 오후 1:30 주일60부예배: 오후 1:30 주일61부예배: 오후 1:30 주일62부예배: 오후 1:30 주일63부예배: 오후 1:30 주일64부예배: 오후 1:30 주일65부예배: 오후 1:30 주일66부예배: 오후 1:30 주일67부예배: 오후 1:30 주일68부예배: 오후 1:30 주일69부예배: 오후 1:30 주일70부예배: 오후 1:30 주일71부예배: 오후 1:30 주일72부예배: 오후 1:30 주일73부예배: 오후 1:30 주일74부예배: 오후 1:30 주일75부예배: 오후 1:30 주일76부예배: 오후 1:30 주일77부예배: 오후 1:30 주일78부예배: 오후 1:30 주일79부예배: 오후 1:30 주일80부예배: 오후 1:30 주일81부예배: 오후 1:30 주일82부예배: 오후 1:30 주일83부예배: 오후 1:30 주일84부예배: 오후 1:30 주일85부예배: 오후 1:30 주일86부예배: 오후 1:30 주일87부예배: 오후 1:30 주일88부예배: 오후 1:30 주일89부예배: 오후 1:30 주일90부예배: 오후 1:30 주일91부예배: 오후 1:30 주일92부예배: 오후 1:30 주일93부예배: 오후 1:30 주일94부예배: 오후 1:30 주일95부예배: 오후 1:30 주일96부예배: 오후 1:30 주일97부예배: 오후 1:30 주일98부예배: 오후 1:30 주일99부예배: 오후 1:30 주일100부예배: 오후 1:30 주일101부예배: 오후 1:30 주일102부예배: 오후 1:30 주일103부예배: 오후 1:30 주일104부예배: 오후 1:30 주일105부예배: 오후 1:30 주일106부예배: 오후 1:30 주일107부예배: 오후 1:30 주일108부예배: 오후 1:30 주일109부예배: 오후 1:30 주일110부예배: 오후 1:30 주일111부예배: 오후 1:30 주일112부예배: 오후 1:30 주일113부예배: 오후 1:30 주일114부예배: 오후 1:30 주일115부예배: 오후 1:30 주일116부예배: 오후 1:30 주일117부예배: 오후 1:30 주일118부예배: 오후 1:30 주일119부예배: 오후 1:30 주일120부예배: 오후 1:30 주일121부예배: 오후 1:30 주일122부예배: 오후 1:30 주일123부예배: 오후 1:30 주일124부예배: 오후 1:30 주일125부예배: 오후 1:30 주일126부예배: 오후 1:30 주일127부예배: 오후 1:30 주일128부예배: 오후 1:30 주일129부예배: 오후 1:30 주일130부예배: 오후 1:30 주일131부예배: 오후 1:30 주일132부예배: 오후 1:30 주일133부예배: 오후 1:30 주일134부예배: 오후 1:30 주일135부예배: 오후 1:30 주일136부예배: 오후 1:30 주일137부예배: 오후 1:30 주일138부예배: 오후 1:30 주일139부예배: 오후 1:30 주일140부예배: 오후 1:30 주일141부예배: 오후 1:30 주일142부예배: 오후 1:30 주일143부예배: 오후 1:30 주일144부예배: 오후 1:30 주일145부예배: 오후 1:30 주일146부예배: 오후 1:30 주일147부예배: 오후 1:30 주일148부예배: 오후 1:30 주일149부예배: 오후 1:30 주일150부예배: 오후 1:30 주일151부예배: 오후 1:30 주일152부예배: 오후 1:30 주일153부예배: 오후 1:30 주일154부예배: 오후 1:30 주일155부예배: 오후 1:30 주일156부예배: 오후 1:30 주일157부예배: 오후 1:30 주일158부예배: 오후 1:30 주일159부예배: 오후 1:30 주일160부예배: 오후 1:30 주일161부예배: 오후 1:30 주일162부예배: 오후 1:30 주일163부예배: 오후 1:30 주일164부예배: 오후 1:30 주일165부예배: 오후 1:30 주일166부예배: 오후 1:30 주일167부예배: 오후 1:30 주일168부예배: 오후 1:30 주일169부예배: 오후 1:30 주일170부예배: 오후 1:30 주일171부예배: 오후 1:30 주일172부예배: 오후 1:30 주일173부예배: 오후 1:30 주일174부예배: 오후 1:30 주일175부예배: 오후 1:30 주일176부예배: 오후 1:30 주일177부예배: 오후 1:30 주일178부예배: 오후 1:30 주일179부예배: 오후 1:30 주일180부예배: 오후 1:30 주일181부예배: 오후 1:30 주일182부예배: 오후 1:30 주일183부예배: 오후 1:30 주일184부예배:				

선교 편지

멕시코

할렐루야! 제가 최근 크리스천 광대팀과 Baja California(멕시코 서쪽의 고드름 같이 생긴 부분) Sur(남쪽) 거의 끝부분인 La Paz 근교의 한 교회의 초청으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 교회 젊은 리더들에게 광대팀 사역에 대한 전반을 전수하고 금-토-주일 저녁에는 교회와 동네 아이들을 초청하여 광대 분장을 한 사역을 직접 시범을 보여 어린이 전도에 불을 붙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키가 매우 작은 목사님의 자연스런 목회로 교회가 잘 성장한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다시 가서 낮에는 교도소에서, 저녁에는 그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달동네 아이들과 바닷가도 가고 영화도 가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티화나에는 많은 산동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수년째 관계하는 한 가난한 달동네의 초라한 미니 초등학교에 13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3개로 각 교실에 2개 학년씩 3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공부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풍나물 교실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여름방학 기간 중에 단체로 바닷가로 나들이도 가고, 차를 빌려 시내로 가서 영화관람도 하였고,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6학년 올라간 학생들에게 책가방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개학한지 두 달이 되는데 아직도 교복의 일부를 구입하지 못

한 일부 학생들의 교복을 구입하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 귀한 선교비를 보내 주시는 교회와 후원자분들 덕분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에벤에셀(Ebenezer)교회 어린이들 위한 식당 공사

이 교회에서 아이들 걸음으로 7분-10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는데 오후반 아이들은 이 교회 식당에서 준비한 영양성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갑니다. 식당 안 왼쪽에 3개의 교실을 만드는 작업과 전기공사는 여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팀으로 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아직도 많은 작업이 남았습니다. 천정에 회칠 작업이 3/4쯤 남았고, 부엌의 싱크대와 찬장 등도 놓아야 하고, 낡은 식탁들과 의자들도 전부 새것으로 바꾸어주고 싶고, 바닥도 타일로 깔아주고 싶습니다.

합창 연습

달동네 학생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단체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다가 8월 끝 주부터 매주 토요일 합창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는 물론 동네 교회에도 그런 연습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약 15분 정도 떨어진 Ebenezer 교회로 불러와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합창단 이름도 그 교회 이름의 뜻이 좋아 "Coro Ebenezer" 즉 "에벤에셀 합창단"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교통편도 제공하고 있고, 간식도 준비하여 먹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 잘 체계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향(Aroma de Jesus)교회 어린이들

또 다른 한 가난한 동네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월 초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만 동역자 Chuy 전도사와 사모가 잘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렌트한 집이 너무 좁고 초라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좀 더

끔한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아이들을 위해 컴퓨터도 몇 대 갖추고 싶고, 방과 후에는 여기 교회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다. 또한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가 사역하는 여러 교도소들에 담요를 구입하여 넣어 주는 일을 하여야합니다. 이 부분은 곧 별도의 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토렌스의 한 교회에서는 이미 교회행사로 모금을 하여 11월 중순에 직접 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LA의 한 구호 단체에서 담요 100장을 멕시코 교도소로 보내오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멕시코의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정성스런 선교헌금으로 동역하여 주시는 귀한 교회들과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사진들과 함께 여러 선교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하단에 표시되었음).

기도 제목

- 멕시코 옹고 II 교도소 내 교회 건축과 헌당식을 마치게 되어 감사
- 달동네 초라한 미니 초등학교 학생들을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육성 할 수 있도록, 나아가 지속적으로 그 가난한 동네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 Ebenezer 교회 주변의 어린이들을 먹이기 위한 식당 공사가 잘 진척되기를
- 새롭게 시작한 예향교회에 잘 정착되며 그 동네에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기를.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넓은 공간, 공부할 책상, 컴퓨터, 아이들 간식 등이 마련되기를
- Chuy-Fernando-Oscar-Eduardo-Martín-Carlos-Ronky 등의 멕시코인 사역자들과 오래오래 잘 동역할 수 있도록

멕시코 최재민 선교사 & Fernando-Chuy-Carlos-Martin-Oscar-Eduardo-Ronky 드림

4mexico@daum.net



교회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광대 분장을 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었다.



교도소 앞에서 차에 싣고 온 스크린을 내리고 있다.

깔끔한 장소로 이전하고 싶고, 매주 아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먹을 것들을 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넓고 깔

재소자들 위한 담요 모금
최근 여러 교도소들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소자들의 거듭남이 있습니

십자말 • Cross Word (22)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 푸는 열쇠>

- 여럿을 모아서 관계를 지어 하나로 만들. 우리의 소원은 OO-(엡1:10).
- 블레셋땅 에그론에서 송배하던 신 이름(숙11:15).
- 살구의 일종 소아시아가 원산지. 열매는 식용(창43:11).
- 주색이 빠져 난봉을 부림(신21:20).
-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
- 금으로 만든 대접(스1:10).
- 깨진 그릇(사31:12).
- 베냐민사람 사하람의 아내(대상8:9).
- 아침이나 저녁(사38:12).
- 신자, 성도(마23:15).
- 나를 낳은 여인.
- 여닫는 물건을 잠그는 쇠(느3:3).
- 벼 사이의 정분(욥29:4).
- 사울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행6장).
- 12사도 중 한 사람이니 본명은 나다니엘이다(마10:3).
- 한 두둑과 고랑을 합하여 가리키는 말(욥31:38).

<세로 푸는 열쇠>

- 물결 하나가 수많은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 사소한 사건이 널리 영향을 미쳐 나감을 이르는 말(고사성어).

- 길로 통하여 다니는 어구(겔42:9).
- 타고난 성질, 체질, 재질(창30:35).
- 갈릴리 벳새다에 거하는 어부. 야고보와 요한의 부친(마4:21).
- 노아가 만든 엄청난 큰 배(창6:14).
- 마길의 아내 마아가가 낳은 둘째 아들이다(대상7:16).
- 여성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겔3:9).
- 깃발의 신호(민2:2).
- 나아리의 아들로서 나아리의 소생이다(대상4:6).
- 조형미술의 한 가지로 새겨어 만든 물건(사2:16).
- 간사하고 교활함(잠7:10).
- 도장으로 사용하는 손가락지(창41:42).
-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돌(스4:7).
- 지수정(계21:20).
- 서너개의 쇠발에 나무자루를 낀 갈퀴모양의 농기구(삼상13:21).
- 어리석고 몽매함(민12:11).

십자말 정답

부	인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모나리자

스킨 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샤워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Dry Cleaning Yes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9.99	UP TO
Y-Shirt	\$1.50	UP TO
양복 상,하	\$11.99	UP TO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족, 카페트, 밍크

FREE DELIVERY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49)

미국사회 일원으로서의 미래적 과제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차세대 교육목회 방향 설정" 중 "차세대 교육목회의 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한인교회 교육의 상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에 집중해온 것이었습니다. 교육목회 방향 자체가 현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형성 및 영적성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 이것이야말로 매우 올바른 사역이었고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또한 이는 실상 차세대 교육 목회의 상을 고민할 때도 여전히 견지하고 담보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합니다.

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이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거니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당면한 사역의 무게가 이 문제를 직시하여 대면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1세 중심의 한인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여찌 보면 간단할 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한인교회는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닐뿐더러 그 안에는 그들의 자리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는 영어로 교육받고 예배를 드리던 우리 자녀들이, 졸업 이후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기는 매우 힘이 들지요. 본 교회 주변의 대학에 진학한 후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육을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교회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레 성장한 우리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그들이 미국교회 등 다른 신앙공동체를 찾아가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이어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당위를 절감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사실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를 위한 실천적인 고민과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한자부 두가족"이라 하여, 1세 교회 안에 "EM: English Ministry"라는 이름하에 영어권 자녀들만의 예배 및 신앙교육의 공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위와 같은 사

차세대교육은 차세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 상호 유기적이며 원칙을 위한 기반 담보해야

역에 더하여, 이제는 우리 한인교회의 교육이 지금까지의 교육사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신앙 및 그 성숙을 위한 사역 또한 수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초등부와 유고등부를 졸업하여 성장한 자녀들과 또한 그들의 자녀들까지 아우르는 보다 거시적인 교육목회의 상을 세워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아진 우리 1.5세 및 2세 자녀들과 또한 그 1.5세 2세들의 자녀들까지도 위한 교육목회의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그리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자녀세대들을 위한 교육목회의 모습을 새로이 그려보아야 합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이 아들과의 신앙적, 문화적 동적 연결고리를 잃고, 비자발적으로 준비도 없이 우리 안에서 그들의 흔적을, 그들 안에서 우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든, 각각 타 주의 대학들로 흩어진 자녀들이 캠퍼스 주변의 한인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든(중종이들을 위한 캠퍼스사역이 활성화된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방학에 본 교회로 돌아와 있을 때든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여 본교회로 돌아오든지 또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때도 사정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나마 대학생 시절엔 캠퍼스사역이나 유스그룹에 참여하는 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지만 대학 졸업 이후에는 이제 그조차도 여의치 못하니 말입니다. 유초등부나 유고등부 각각의 부서가 그들의 자리로 공동체가 되어주었지만 이제 그 교회 안에 자신들이 있을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 신앙생활 및 교회생활 측면에서 모두 교회 안에서는 주변인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의 소외감을 보듬고 그 상처들을 치유해준던 교회가 이제는 똑 같은 소외감을 그들에게 더해주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 그들의 신앙적 영적 성숙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실재도 교회들이 그들을 위한 교

여전히 그들은 주류는 아니었지만 1세 어른들의 지원과 공급으로 제법 탄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EM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들이 독립적으로 2세대만의 교회로 정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2세 교회가 2세들의 타민족과의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한 미국인들 혹은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을 포용하면서 다문화 교회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이들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사실 이러한 실정들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교회들은 그나마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1세 중심의 한국어사역을 주로 하는 한,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역을 수행하기 힘겹고 그들 또한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없으므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EM, 2세 교회, 혹은 다문화 교회의 형태들로 그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진행되거나 대부분은 이러한 사역들을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열방을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시2:1-4)

시2편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하면서 시작됩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창조 이래 계속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무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거룩한 계획은 조금도 변함없음을 보여주십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꾀망하실 수 있는 분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하나님께서 세상이 사람들의 악한 음모를 다 내려다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그분은 전능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 함축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 담대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북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믿고 기도하며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 기 바랍니다.

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시2:4-6)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일은 그 어떠한 반대와 훼방에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세우기 위해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바벨론에게 잠시 맡겨놓았더니, 성도들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온 성전을 불태우고 거룩한 기물을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며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5장에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천령의 귀인

이 모여 잔치하는 자리에서 벽에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왕의 나라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벨사살로 바벨론은 끝났습니다. 진정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시니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있게 살아야겠습니다. 원수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2:7-9)

7절 "영"은 "약속된 법령",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칙령", 신학적으로는 "작정"을 의미합니다. 그 작정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1:4).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으로 그 뜻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독생자를 말씀합니다. 우리

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일체이시며,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행13:32-34).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철장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 같이 부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목 예수님께 돌아오라(시2:10-12)

지혜와 교훈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는 항상 거룩한 두려움이 함께 합니다. 2)이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화해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

며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는 길에서 망합니다. 그 진노가 급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편기자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모두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성도님들에게 더욱 놀라운 은총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시3:1-4)

본문의 다윗처럼 신실한 성도도 이 땅에서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상은 성도를 더욱 유익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 역경을 통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먼저 대적은 시시때때로 나의 영혼을 공격해 낙심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영

혼의 대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힘이 빠질 때가 많으나 그 많은 대적들도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없이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때 대적이 많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토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시3:1-4)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에 다윗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요 오히려 그 대적들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3, 4절 "여호와여...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데도" 할렐루야! 다윗은 그 수많은 비방과 공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것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로마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6 00175 ROMA, ITALY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4-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490-7000, Fax: (8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2279, Fax: (062)522-4834 500-170 경곡동역 북구 금곡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55)210-5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2동 1418-1, (612-824)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특별기도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릉구 영평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158-053)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침례인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5: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안국동 520 (11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55)210-5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7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신곡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월-토)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인왕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리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새벽: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리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로 415 www.yang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4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104(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서3동 448-23	청주노인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5-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청운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뱅크비발리미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30(30분) 금요심리기도회: 매일 저녁 7:00(1시간) 금요일 오후 7: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RAITA RITA, 27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호종교: 아침 7:40 수요예배: 오후 7:40 수요예배: 오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m@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특별기고 자폐아 진단과 치료 이남경(자폐아를 둔 어머니)

'My son is autistic'

내 아이는 자폐를 갖고 있습니다 - 조기진단의 중요성

지금이야 답답하게 이렇게 이야...

2007년 우리가족이 미국에 왔을...

경민이가 자폐 증세를 보이기 시...

미술교육도 시키고 가족과 여행도...

그러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온...

서 검사를 받았는데 언어지연으로...

요즘은 전반적 발달장애를 그냥...

자폐의 징후와 조기진단

자폐증후단체인 오티즘스피크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년 동안 아...

이 아이의 자폐 치료효과에 미치는...

자폐의 징후는 다음과 같다:

- 생후 12개월까지 웅얼이를 하지 않는다.

구사하지 않는다.
• 나이와 관계없이 웅얼이, 언어...

자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오...

몇 개월을 보았다.
이 당시 내가 생각하는 자폐아는...

요즘은 생후 6개월부터 조금만 이...

다. 자폐가 의심 될 경우, 지역사회...

생후 36개월 미만인 아이의 발달...

(자료제공: 오티즘스피크스, 뉴욕시...

본사방문

권해수 선교목사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선교회 대표)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비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

세계성지문화연구소와 중...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또한 일본선교와 한국에서 북한...

권 목사는 "지금은 필라델피아에...

권 목사는 "특히 동부지역을 중...

이메일: jasonkwon777@yahoo.com

(유원정 기자)

(13면에서 계속)

이슬람금융의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달 29일...

■ 용어설명

▷이슬람금융 :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면에서 계속)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차...

여기서 목회의 상을 그린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차...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차세대 위...

첫째 차세대 교육은 차세대에 의...

는 것입니다. 셋째는 차세대 교육...

B 베데스다 동문을 초대합니다!

동문과 교수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음악회

1부

Classical Music

Piano, Voice, Flute, Clarinet, Saxophone

2부

Praise Ministry (CCM)

Jazz Piano, Vocal, Violin, Choir

2013. 12. 18(수) 오후 7:30

주최 | 베데스다 대학교 총동문회

주관 | 베데스다 대학교 음악과

후원 | 나성 순복음 교회

문의 | 714-616-2193 (김지연 음악교)



나성순복음교회

1750 N. Edgemont St. LA 90027